



2015 vol.2

특집기획

진안 도토리 청자가마 학술 조사  
전주 오목대 후백제 성벽 발굴

박물관 사람들

보존처리 학예연구사

지상강의

세계소수민족기행

상설전시실 소개

역사자료실

이야기 마당

내 마음속 유적	문학작품 속 음식 이야기
전시품 이야기	영화 속 문화유산 이야기
옛날 사진 이야기	자원봉사자 에세이

내가 찾은 박물관

부안청자박물관 이모저모  
전북지역 학예사 인터뷰  
부안청자박물관 관람 소감



04 05

관장 칼럼

대한제국의 제실박물관과  
대한민국의 국립박물관

06 21

특집 기획

진안 도통리 청자가마터  
학술 조사

전주 오목대 후백제  
성벽 발굴



22 27

박물관 사람들

보존처리 학예연구사  
인터뷰 김지영 연구원

2015  vol. 2 \_contents

발행일 2015년 9월  
발행처 국립전주박물관  
디자인·제작 디자인노리  
5507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송고개로 249  
tel. 063)223-5651 fax. 063)224-0799



74 79

박물관 소식

전북지역 박물관 행사 소개  
어린이박물관 새단장 개관



28 31

지상강의

수오가 사람들의  
행복한 장례식



32 35

상설전시실 소개

역사자료실



36 47

이야기마당

내 마음속 유적

전시품 이야기

옛날 사진 이야기

문학작품 속 음식 이야기

영화 속 문화유산 이야기

자원봉사자 에세이

48 55

내가 찾은 박물관

부안청자박물관 이모저모

전북지역 학예사 인터뷰

부안청자박물관 관람 소감

56 59

전시 리뷰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80주년 기념 소장품 특별전



60 63

국의 박물관 소개

일본 이시카와현립  
역사박물관, 같이 둘러보면  
좋은 곳



64 65

박물관 10배 활용하기

대관 방법 및  
에피소드 소개

66 73

문화나눔

예정 전시 소개



교육 프로그램 소개

야간개장 프로그램 소개

80 83

박물관 캘린더

문화행사, 전시, 교육 일정



# 대한제국의 제실박물관 과 대한민국의 국립박물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 박물관의 역사는 이미 100년을 넘어서고 있다. 1909년 11월 1일에 문을 연 대한제국의 ‘제실박물관(帝室博物館)’을 기점으로 삼았을 때 그러하다. 하지만 곧바로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제실박물관은 비운의 대한제국과 함께 점차 사람들에게 잊혀져갔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드물다. 그중에서도 일제강점기에 제실박물관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1948년 12월에 정식으로 문을 연 국립박물관[국립중앙박물관]과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더욱 드물다.

원래 제실박물관은 1909년보다 이른 시기에 건립될 가능성이 있었다. 1882년 일본에 수신사(修信使)로 파견되었던 박영효(朴泳孝, 1861~1939)가 새로운 교육 및 학술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일본처럼 제실박물관의 설립을 고종(高宗, 1852~1919)에게 건의한 바 있었다. 그러나 급변하던 국내의 정세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채 1907년 순종황제가 즉위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였다. 즉 순종황제가 즉위한 이후 1908년 1월부터 박물관 설립을 전제로 궁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유물 이외에 새로이 도자기, 금속유물, 구슬 등을 대대적으로 수집하였고, 그 유물들을 토대로 기존의 궁궐 건물을 그대로 활용한 최초의 박물관을 개관하게 되었다.

당시의 제실박물관은 일본의 실질적인 지배체제 아래에서 ‘이왕가(李王家) 일가의 취미 제공과 조선의 고미술(古美術)을 보호한다’는 목적 하에 일본인 고미야 미호마쓰(小宮三保松)와 이완용, 이윤형 형제가 주관하였다는 오점을 남겼지만, ‘백성과 함께 즐기겠다’는 순종황제의 ‘여민해락(與民偕樂)’ 정신이 반영된 대중박물관으로 본격 출발하게 된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더욱이 근대 박물관으로써의 면모를 과시하기 위해 당시로서는 거금인 30만환을 들여서 새로운 박물관 건물을 설계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한일합방에 따라 대한제국의 제실박물관은 1910년 12월 30일에 새로 설립된 ‘이왕가박물관(李王家博物館)’으로 건물과 소장품, 직원이 그대로 인계되어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왕가의 세입과 세출을 담당하던 직원 7명이 근무하였고, 매주 목요일은 순종(純宗, 1874~1926)을 위해 휴관하였으나 순종이 붕어(崩御)하신 이후에는 연중무휴로 개방하였다. 그리고 새로 지은 본관(本館)과 경복궁 내의 여러 전각(殿閣)에 불상과 도자기, 옥석기(玉石器), 목죽제품(木竹製品)을 분산하여 전시하였다.

그런 상태로 오랫동안 운영되던 이왕가박물관은 1938년 6월 5일에 ‘이왕가미술관(李王家美術館)’으로 또 한 번 변신하게 된다. 당시 일제는 일본 미술품이 많이 전시되던 덕수궁 석조전 옆에 조선 미술품을 전문으로 하는 신관(新館)을 짓고, 창덕궁에 있던 이왕가박물관의 소장품을 옮겨와서 덕수궁 석조전의 소장품과 합쳐 새로이 이왕가미술관을 발족시켰다. 기존의 제실박물관 소장품에 새로 수집된 조선의 미술품과 일본의 근대미술품이 합쳐진 박물관이 된 것이다. 여기에는 고고학 발굴유물을 토대로 황국사관(皇國史觀)을 추구하던 조선총독부박물관과 구분하여 순수 미술품 위주의 박물관을 지향한다는 목적을 앞세웠다.

당시 사무실과 수장고, 강당으로 사용되던 1층에는 전시실이 없었고, 2층에는 신라,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토·도자기가 전시되었고 중앙의 홀에는 대형 불상과 동종(銅鍾)이 전시되었다. 그리고 3층에는 신라, 고려시대의 각종 기와와 공예품, 불상 이외에 조선시대의 공예품과 회화가 집중적으로 전시되었다.

한편 1945년 해방 이후에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본격적으로 ‘국립박물관’이 태동하게 되었다. 미군정의 후원 하에 김재원 박사는 서울의 조선총독부박물관 본관(本館)과 부여, 공주, 경주, 개성에 있던 분관(分館)을 동시에 접수하였고, 약 4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1945년 12월 3일에 새롭게 단장된 박물관을 개관하였다. 그런 상태로 박물관이 임시 운영되다가 정부 수립과 함께 1948년 12월에 국립박물관의 직제(職制)가 공포되면서 정식으로 국립박물관이 출발하게 되었다.

그 무렵에 제실박물관의 소장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던 이왕가미술관은 ‘덕수궁미술관’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관리는 국립박물관이 아닌 구황실재산사무총국과 그 후신인 문화재관리국이 맡고 있었다. 이러한 상태는 1969년까지 지속되다가 소장품 15,000여 점이 모두 국립박물관으로 이관(移管)하게 되었다.

그 계기는 혹독한 전란(戰亂)을 겪은 국립박물관이 1956년 6월 23일에 덕수궁 석조전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찾아왔다. 덕수궁이라는 동일 공간에서 활동하던 국립박물관과 덕수궁미술관-덕수궁 내의 석조전과 일제가 지은 신관-은 1969년 5월에 정부의 명령에 따라 관리가 모두 국립박물관으로 위임하게 되면서 제실박물관의 소장품 전부와 이왕가미술관 시절부터 소장되었던 조선의 미술품, 일본의 근현대 미술품이 모두 국립박물관에서 통합 관리하게 된 것이다.

## 1909~1910

### II

사실 일제강점기와 복잡한 해방 정국, 한국전쟁이라는 혼돈기(混沌期)에 박물관의 건물은 그 자체가 상징적인 존재라는 특성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건축물로서의 박물관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다지 의미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소장품을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 타당한데, 이러한 관점에서 제실박물관의 소장품은 온전히 국립박물관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대한제국의 제실박물관은 대한민국의 국립박물관으로 온전히 그 맥이 이어졌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창경궁 환경전(국립중앙박물관 유리관판)

## 진안 도통리 청자 가마터 학술 조사

### 한국의 도자기는?

우리나라에서 청자가 처음 만들어진 시기에 대해 통일신라 말기 회유도기의 기술이 중국 자기문화의 영향을 받아 한국 자기가 우리 고유의 기술로 제작되었다는 설과 중국의 자기 장인이 우리나라로 들어와 경기와 황해도지역을 중심으로 10세기 무렵에 제작하였다는 설이 있다. 이 가운데 실제 유물과 청자가마의 발굴을 통해 밝혀진 객관적인 사실을 고려할 때, 10세기 중엽 경에 제작되었다는 것이 대세를 이룬다.

특히 청자제작이 구체적인 시기는 중국의 제도와 문물을 적극 수용하여 고려의 제도, 문물 등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중앙중심의 집권체제를 확립한 고려 광종연간(949~975년 재위)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무렵 중국에서는 청자제작지로 유명한 오월(吳越)이 북송과의 전쟁에 의해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태(960~978년 사이)가 되면서, 오월국 청자장인(匠人)들은 주변의 용천요, 요주요, 경덕진요 등지로 옮겨가 청자 제작을 새롭게 시작하였는데, 이 가운데 월주요의 청자장인이 고려에 들어와 고려의 장인에게 기술을 전수해 청자가 제작되었다는 것이다.

초기의 청자는 중국의 제작기술과 형태, 운영방식 등을 그대로 모방하였으며, 수도인 개경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경기도와 황해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경기도 지역의 주요 가마는 시흥시 방산동, 용인 서리, 여주 중앙리 등에 초기 가마터가 존재하고 있으며 개경 북쪽 황해남도 지역에서는 봉천군 봉암리 1호 가마와 봉천군 원산리 2호 가마터 등이 있는데, 이러한 가마들은 모두 벽돌가마터(塼築窯)이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곳은 1989년 발굴된 봉천군 원산리 가마인데, 송 태종(太宗, 976-997)의 연호(年號)인 순화가 새겨진 순화삼년명(992년) 두형제기(豆形祭器)와 순화사년명(993년) 청자편이 여러 점 출토되었다.

## 진안 도토리 청자가마터는?

진안군 성수면 도토리 청자가마터는 1980년대 후반에 학계에 수많은 갑발과 청자퇴적층이 있다는 것이 보고되면서 초기청자 가마로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진안 도토리 청자가마터의 주위에는 벽돌가마일 가능성을 시사해주는 벽돌 편과 초기 청자완 편들이 주위에 산재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정문화재로도 지정되지 않아 거의 방치된 상태로 놓여 있었다.

2013년 9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국립군산대학교박물관에서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시굴조사는 도토리 일대의 청자 가마터를 2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중평마을 모정의 서쪽과 동쪽을 조사한 “A”구역과 A구역에서 북쪽 약 400m 떨어진 중성골 일원의 “B”구역으로 진행되었다. “A”구역에서는 다량의 원통형 갑발과 함께 완과 대접류 편, 뚜껑 편, 탁잔, 광구병 편 등 많은 양이 확인되었으나, “B”구역에서는 소량의 완과 대접류 편만 확인되어 2개 지역의 도편 분포량이 차이가 있다. 특히 “A”지구에서는 많은 양의 중국식 및 한국식 해무리굽, 선해무리굽 일부가 출토되어 도토리 청자가마터가 한국의 중요한 초기 청자 가마일 가능성을 높여 주었지만, 당시 시굴조사에서는 가마의 형태와 규모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립전주박물관과 군산대학교 박물관이 공동으로 2015년 4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는 가마터 서쪽 요도구 퇴적층에 대한 범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하였다.

조사는 서쪽 요도구 퇴적층의 북쪽 하단부와 동쪽 경사면에 트랜치를 구획하여 퇴적층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북쪽 하단부에 대한 트랜치 조사 결과, 서쪽 요도구 퇴적층의 북쪽 경계는 유적이 자리한 중평마을을 동-서로 관통하는 작은 길의 하층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경사면을 따라 요도구가 쓸려 내려온 퇴적양상이 확인되었으며, 퇴적층의 높이는 2m 가량 된다.

퇴적층의 동편 경계를 파악하고자 마을 모정 동쪽에 인접한 작은 길의 경사면과 평탄지에 대한 트랜치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략 5m 깊이의 요도구 퇴적층이 확인되었으며, 퇴적층의 바닥면에서 가마로 추정되는 유구의 일부가 드러났다. 가마로 추정되는 유구의 장축방향은 경사면과 나란한 동북-서남에 두었으며, 폭은 1.5m 내외이다. 유구의 내부에는 소토와 불에 그을린 요도구 편이 확인되며, 유구의 벽면을 따라 갑발이 열을 지어 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조사 성과와 지금까지 확인된 유물과 유구로 볼 때, 진안 도토리 청자가마는 호남지역의 청자가마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조성된 가마로 판단된다.



진안 도동리 초기청자요지 조사 현황도    ■ 2014년 조사구역    ■ 2015년 조사구역



동쪽 경사면 Tr. 가마터 노출 상태



동쪽 경사면 Tr. 가마터 근경



도토리 청자가마터 전경

도토리 청자요지 서쪽 요도구 퇴적층 근경

동쪽 경사면 Tr. 조사 전 모습



북쪽 하단부 Tr. 조사 전 모습

북쪽 하단부 Tr. 조사 후 모습

북쪽 하단부 Tr. 내 동쪽 증위 양상



북쪽 하단부 Tr. 내 서쪽 증위 양상

도토리 초기청자가마터 서쪽 요도구 퇴적층 퇴적양상(2014년 조사)

도토리 초기청자가마터 출토 명문갑발(2014년 조사)



도토리 청자가마터 출토  
선해무리굽 청자 각종(2015년 조사)



도토리 청자가마터 출토  
한국식 해무리굽 청자 각종(2015년 조사)



도토리 청자가마터 출토 갑발(2015년 조사)

도토리 청자가마터 출토 벽돌 편(2015년 조사)



## 진안 도통리 청자가마터의 운영시기는?

진안 도통리에서 수집한 유물을 살펴볼 때, 기본적으로 도통리 청자는 벽돌가마의 운영시기에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반도의 벽돌가마는 크게 세 그룹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그룹은 총길이 약 40m에 가마의 내벽 폭 약 200cm, 측면출입구는 7개를 갖춘 대형이다. 이 그룹의 가마는 청자기술을 전해 준 월주요(越州窯)의 구조나 규모와 큰 차이가 없으며 생산품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하다. 두 번째 그룹은 길이가 약 40m에 이르는 전축요(塼築窯: 벽돌가마)계 토축요(土築窯: 진흙가마)로 처음에는 벽돌가마로 운용되다가 진흙가마로 바꾸어 요업을 지속했던 가마이다. 세 번째는 총길이 약 20m 정도의 중형 가마로, 대형 가마를 운영하기에 길이 협소한 곳에 주로 보인다. 이러한 가마 가운데에서도 일부는 두 번째 그룹과 마찬가지로 흙가마로 전환한 경우도 있다.

중서부지역에서 볼 수 있는 대형 벽돌가마는 청자 기술이 처음으로 도입되었을 때의 모습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 이에 비해 벽돌가마계 진흙가마나 중형 벽돌가마는 중서부지역에서 청자기술이 주변지역으로 퍼져나갈 때에 해당하는 가마들로 대형 벽돌가마에 비해 약간 늦은 단계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도통리 가마의 운영시기를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인 가마의 구조와 길이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도통리 A지구의 청자가마가 벽돌가마의 특징이 남아 있는 상태로 폐요된 것으로 보여 가마 운영시기의 추정에 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황해도 배천군 원산리 가마 요상(窯床)의 최상부에서 순화명 청자류가 발견된 것을 볼 때 벽돌가마들은 10세기 말에서 11세기 초 사이에 사라져간 가마로 보아도 무방하므로, 일단 진안 도통리 A지구의 가마의 운영시기는 10세기 3/4~4/4분기 사이인 10세기 후반에 운영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아직 정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가마의 구조나, 동반하여 출토되는 유물들에 따라 그 운영시기는 유동적이라 할 수 있다.

## 진안 도통리 청자가마터의 운영 주체는?

진안 도통리 지역의 청자가마에서는 진안고원을 무대로 성장한 호족세력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 주변에 위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강주소의 존재를 의식해서 그 주변에 대규모 초기청자 가마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일개의 호족 세력이 운영했던 것이 아니라 후백제 국가차원에서 조성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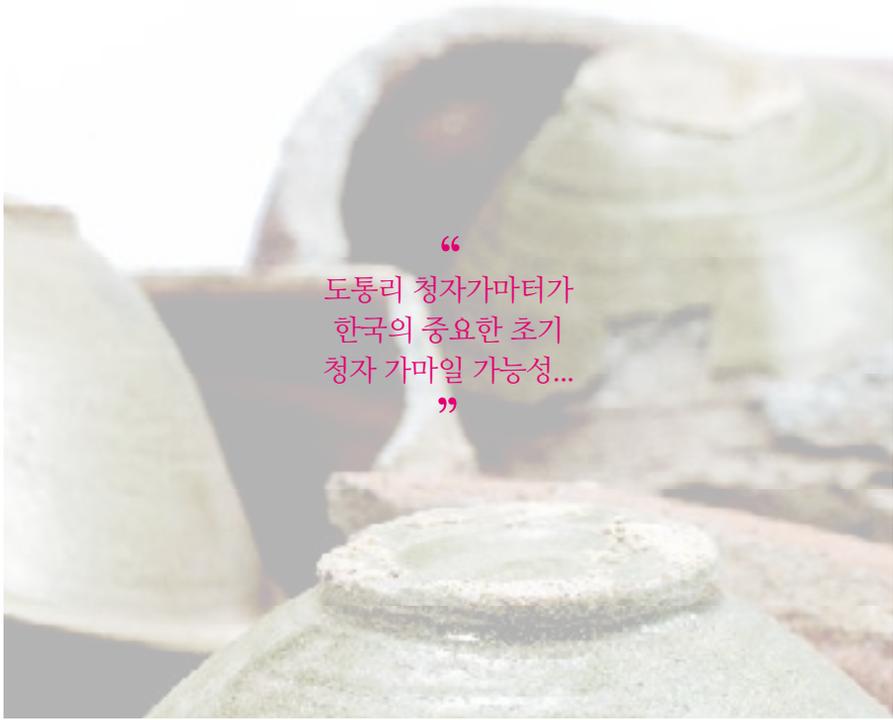
한편, 도통리 가마가 후백제에 의해 조성되었을 것으로 판단하는 주요한 이유는 후백제와 오월의 단독한 국제외교 관계 때문이었다. 선사시대부터 해양 문물교류의 중심지인 군산만을 중심으로 새만금 유역은 후백제 국제 문물교류의 거점이었다. 851년 정보고 선단의 거점인 청해진(淸海鎭)을 없애고 그곳의 사람들을 백

골군(碧骨郡)으로 이주시켰는데, 이들이 후백제 건국 이후 중국과의 국제교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을 것이다. 견훤은 전주로 도읍을 옮긴 뒤 군산지역의 거점 포구인 임피를 출발해 군산도를 경유하는 사단항로를 이용하여 후백제와 오월이 긴밀한 교류를 하였다. 이러한 후백제와 오월의 국제외교의 결실로 청자 제작기술이 후백제에 전래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축적된 도자사 연구와 진안 도토리 청자가마의 발굴 성과를 보면 고려시대 초기일 가능성이 높지만, 향후 발굴 성과에 따라 후백제 견훤세력이 후원하였을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 진안 도토리 청자가마터의 향후 계획은?

2013~2015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발굴조사에서 가장 큰 성과는 퇴적층 하부에서 가마의 보통 부분으로 추정되는 유구가 확인한 것이다. 향후 도토리 청자가마의 운영시기 및 후원세력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가마 유구의 구조와 규모를 하루 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향후 국립전주박물관은 진안 군과 함께 2015년 봄에 확인된 가마 유구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도토리 청자유적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마련과 국가지정 문화재(사적) 등록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도토리 청자가마터가  
한국의 중요한 초기  
청자 가마일 가능성...  
”

## 전주 오목대 후백제 성벽 발굴

박물관 소식지 “온” 창간호에 ‘옛날 사진 이야기’ 코너에서 오목대(梧木臺)를 소개했었다. 그 사진을 보면, 오목대 주위로 일련의 돌[城壁]이 관찰되는데, 이것들을 『전주부사(全州府史)』와 전영래 선생은 후백제(892~936년) 견훤(甄萱, 867~936) 도성의 남서쪽으로 주장한 바 있다. 과연 후백제 도성의 남서쪽 성벽일까?

작년 말, 국립전주박물관은 후삼국기의 국가 가운데 가장 먼저 나라를 세웠고,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신라와 고려를 압도하였던 후삼국기 최대 강국이었으며 전주를 왕도로 삼았던 후백제 흔적 찾기를 시작하였다. 당시 아직까지 그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실체가 모호한 후백제의 도성이 있었을까? 더 나아가 1115년 전의 후백제 도성이 남아있을까? 후백제시대 전주의 모습은 어떠했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전주의 역사에 있어 후백제는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이 모든 물음에 대한 답을 과연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와 의문을 품었었다.

2014년 12월 24일, 추운 겨울을 보란 듯이 비가 섞인 눈보라가 전주에 내리쳤다. 전주정보문화사업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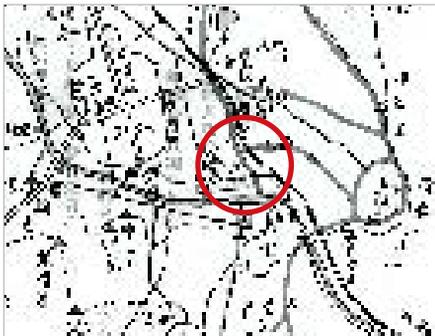
흥원에 있는 거대한 독에 대한 시굴조사 마지막 날이다. 후백제 흔적 찾기의 첫걸음이 막 끝나려는 찰나였다. ‘견훤이 망하고 그 흔적을 없애기 위해 궁성의 서벽만 남겨두고 아예 물을 채워 저수지를 만들었다’는 많은 주민들의 전언이 있었던 이곳을 첫 번째 조사대상을 삼은 것은 이곳이 후백제 궁성의 성벽이든 그렇지 않은 어딘가에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을 후백제 유적이 더 이상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에서 시작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조사에서 그 독은 조선시대 제방층으로 확인되었다. 우리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성과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후백제의 유물들이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 아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기에는 충분했다. 1988년 있었던 경기전 조사나 2007년 이루어졌던 전라감영지 조사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아직도 많은 후백제 유적들은 지하 180cm 아래에서 묻혀 있을 것이다.

실패 아닌 실패를 겪은 후 두 번째의 후백제 흔적 찾기는 2015년 상반기 조선 태조 이성계의 이야기가 서려 있는 오목대에서 있었다.

현재 오목대 동쪽에는 낮고 길게 독이 하나 남아있는데, 1985년 기린로를 개설하면서 절반 가량이 파괴되었다. 그나마 다행이었다. 일제강점기 『전주부사(全州府史)』 기술 당시에는 오목대 정상의 동편에 철길(현재의 기린로)을 따라 직선으로 71m가 남아 있었다. 1948년 항공사진에도 이것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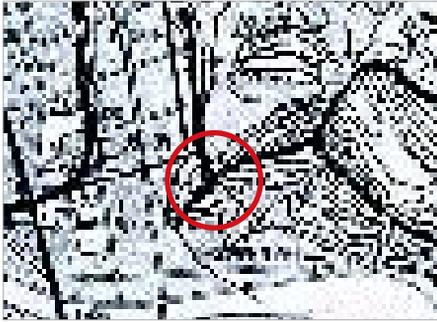
원래 이 길은 오목대와 그 동편의 발산이 말안장과 같은 형태로 이어지는 곡간부인데, 1929년 이전까지는 소로로 활용되다가 1929년 전주-남원간 철로 개설 당시 곡간부가 20m 가량 절단되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동쪽 토축물이 원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1981년 전주역 이전에 따라 전라선(全羅線)의 선형이 바뀌면서 기린로(麒麟路)가 개설될 때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동쪽으로 30m 이상, 서쪽으로도 일부 확장되면서 이때 오목대 동쪽 토축물도 1/2이상 유실되었다. 2014년 지표조사 시 이곳의 유실된 단면에서 돌과 기와편이 많이 노출되어 있어 인공적으로 만든 독인 것이 확인되어 남아있는 독의 정체와 보호를 위해 조사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1943년, 후백제 도성벽 『전주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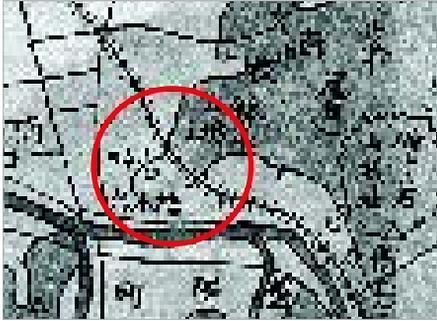
1968년 항공사진, 오목대 비(碑)와 토성벽



1992년, 전영래 선생 후백제 도성벽



1875년 이후, 오목대와 자만동 사이의 소로 『완산부지도』



1930년, 오목대 능선을 관통한 철로 『전주부사』



1981년, 기린로 공사 당시의 철거된 철로 『장간 60주년 전북일보의 기록』

독의 위쪽은 오목대 정상이다. 1380년 태조 이성계가 황산전투 이후 승전 잔치를 베푼 곳으로 알려져 있고, 선왕의 유지가 깊은 만큼 1900년(광무 4년) 고종이 ‘태조고황제주필유지(太祖高皇帝駐畢遺址)’ 비석과 비각을 건립하였다. 1974년에는 전라북도 시도기념물 16호로 지정되었고, 1988년에는 현재의 오목정이 신축되었다. 오목대 주변에서 이밖에도 약 3개의 건물지가 확인되는데 모두 일제강점기 이후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후기, 오목대에서의 잔치 '규장각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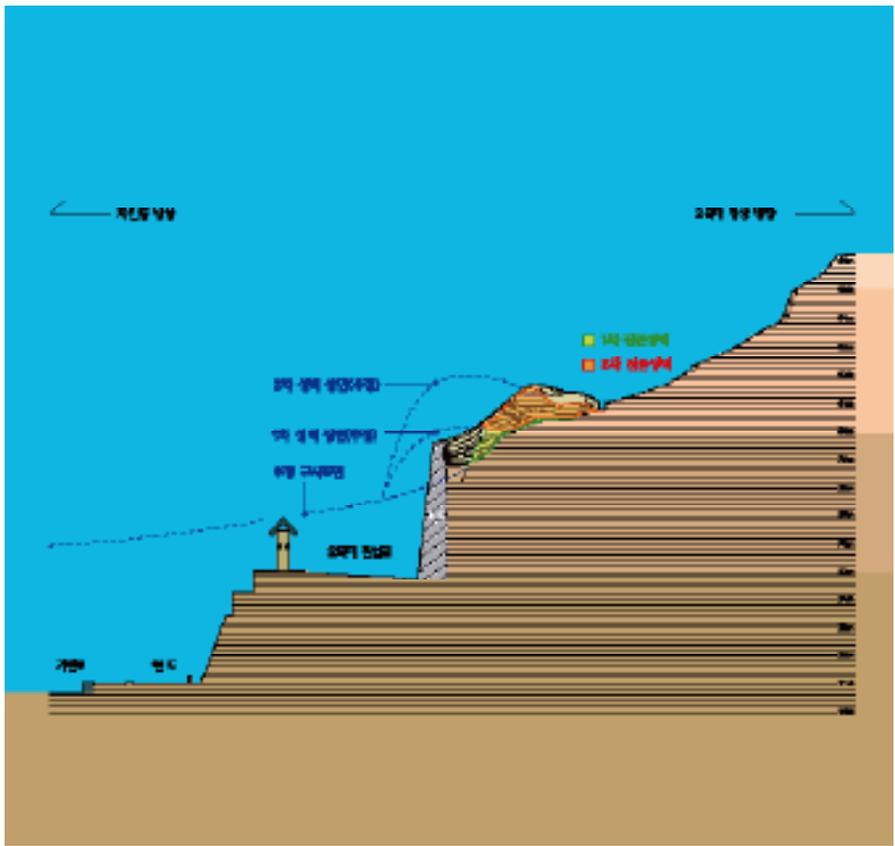


오목대, 1960년경, 『옛 사진 속의 전주 전주사람들』



2015년 자만동에서 본 오목대 전경

조사는 동편의 독을 포함하여 전영래 선생이 확인한 남쪽의 독에 대해서도 이루어졌다. 먼저 동쪽 성벽은 서에서 동으로 낮아지는 암반층 일부를 깎아 편평하게 한 후, 토석과 기와를 혼합한 성토를 2회 이상 반복하여 3~5m 내외로 높게 축조하였다. 규모는 잔존길이가 71m이고, 높이가 3m~5m, 폭이 5m(원형 8m 추정) 내외이다. 조사 결과 성벽의 서쪽에 위치한 오목대 정상과 가지 능선이 조사지 성벽의 최상면 보다 3m~4.5m 높아 당초 전주부사와 전영래 선생이 제시하였던 도성벽의 남서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즉 도성벽의 남서쪽일 경우 방어하는 방향이 서쪽이어야 되나 본 성벽은 동쪽으로 경사져 있어 오목대를 방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주부사(全州府史)』나 전영래 선생이 제시한 후백제 도성체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게 되었다.



2Tr 성벽 복원 모식도    - - - - 복원(추정)    ———— 현지표



1Tr 남쪽 퇴적도



1차 석재+기와층



2Tr 암반 기저부 및 퇴적양상 | 3차 석열 이하 암반 인접층



남쪽 성벽은 오목대 정상부 남편으로 100m, 서편 구릉 사면에서 80m 정도가 확인되었다. 정상부는 오목대 구릉의 정상부와 높이가 같은데 일제강점기 지도를 보면 최소 10m 이상의 고도차가 있어 일부 지형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성벽은 동벽이나 서쪽 구릉과 같이 돌출된 형태는 아니지만 오목대 광장을 중심으로 주변에 많은 기와편이 있고, 동벽의 남쪽 끝과 서쪽 구릉의 동쪽 끝이 정상부와 연결되어 하나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서편의 사면에서는 폭 8m, 높이 3m의 구릉이 비교적 잘 남아 있다. 다만 정상에서 내려가는 능선에 나무로 만든 산책로와 전선이 묻혀있어 일부분 파괴된 상태이다.

조사는 이 부근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성벽의 구조는 전체적으로 남쪽 경사면 가장 아래 부분을 ‘ㄱ’ 형으로 굴착한 다음 1m 간격으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보다 두꺼운 기둥을 세운 다음 풍화암반토와 토석(土石)+와적(瓦積)을 반복적으로 성토하였다. 현재 남아 있는 성토층은 높이 1m이나 기저부를 고려하면 2.2m, 유실된 층을 고려한다면 최소 3m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경사지인 남사면 밑에서 본다면 3m 이상의 성벽을 이루었을 가능성이 높다.



조사전(서→동)



주공열 표토층



조사대상지 조사현황도

이번 조사 성과는 무엇보다도 길이 261m, 너비 8m, 높이 3~5m 규모의 土石+瓦積 혼축성벽을 전주 시내인 오목대에서 확인하였다는 것에 있다.

오목대의 성벽은 후백제 산성으로 비정되는 순천 해룡산성과 축조방식이 유사하며, 출토품 또한 ‘대(大)’·‘관(官)’명문와 ·연화문수막새 ·집선문평와 ·어골문평와 등 후백제 성으로 알려진 동고산성 북문지 3차·서문지 2차 성벽, 순천 해룡산성, 나주 자미산성, 광양 마로산성, 광주 무진고성 출토품과 유사하다.

특히 이러한 출토품은 조성시기가 후백제시기를 포괄하고 있는 통일신라 후기~고려 초로 비정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성벽과 자연단애를 이용한 오목대는 요새이자 전주의 남쪽을 지키는 관문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북쪽의 고토성(古土城)과 더불어 후백제 도성체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넓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오목대 정상부의 평탄한 대지에는 아직까지도 후백제의 여러 방어 시설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 향후 오목대 전역에 대한 세밀한 조사 및 보호가 필요하다

2015년 여름, 후백제 비보사찰로 추정되는 완주 봉림사지와 후백제 관광유적으로 알려진 장수 합미성에 대한 발굴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만 아니라 후백제와 관련이 있다는 역사기록이 있는 동고산성과 남고산성은 물론 후백제의 연호인 정개(正開)가 새겨진 남원 실상사 편운화상부도 주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지금이야말로 연구자는 물론이고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벌써부터 후백제 흔적 찾기 세 번째와 네 번째의 발걸음이 기대된다.



후백제의 유일한 역연대(歷年代)  
남원 실상사 조계암지 편운화상 부도

創祖洪陟弟子安峰創祖片雲和尚浮圖 正開十年庚午歲建

(실상사를)창건한 조사 홍척의 제자이며 안봉사를 개창한 편운화상의 부도이다.  
정개 10년 경오년(910년)에 세운다.



보존과학실 전경

## 보존처리 학예연구사

### 보존처리 학예연구사는 누구인가?

박물관에도 유물을 살려내는 ‘의사’가 있다. 그 의사를 ‘보존처리 학예연구사’라고 부른다. 좀 생소하게 느낄 수도 있다.

사람이 아프면 그 증상에 따라 내과·외과·피부과·산부인과 등 전문 병원을 찾는다. 병원에 가면 의사선생님은 먼저 체온과 혈압을 재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검사나 CT, MRI 촬영 등 다양한 검진을 한다. 그 뒤 환자에 맞게 수술을 할 것인지 약만 먹어도 되는지를 판단하여 처방하고 치료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박물관에서도 전시 혹은 보관하는 유물 가운데 치료가 필요한 것들은 재질에 따라 과학적 장비를 활용하여 보존처리를 실시한다. 옛 무덤에서 출토되는 금속유물은 땅속에 오랜 시간 묻혀 있기 때문에 수분과 염화물 등에 의해 부식된다. 뿐만 아니라 유물은 대부분 환경이나 보관 상황에 따라 파손이나 손상될 수 있다. 보존처리 학

예연구사는 이러한 유물들을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장비, 도구, 재료로써 보존처리하여 원형을 회복시킨다.

### 보존처리 학예연구사가 되려면?

보존처리 학예연구사가 되려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대학 진학 시 문화재 보존 전문분야 전공인 문화재보존학과, 보존과학과 등에 입학하여 공부하는 것이다. 명칭은 조금 다르지만 국내에 정규대학 6곳 정도가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유물의 원재료를 탐구하는 금속공학과, 화학과, 임산공학과 등을 진학하거나 미술학과, 공예학과 등에서 전통미술을 전공한 뒤 보존과학분야의 실무경험을 쌓거나 보존과학 관련 대학원을 진학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외에서 보존과학을 전공으로 공부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마치고 박물관이나 미술관, 연구소 등에서 주관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보존처리 학예연구사로 활동할 수 있다.



이영범 보존처리 학예연구사



사진실

## 유물을 살려내는 ‘의사’



X-선 촬영실

### 보존처리 학예연구사가 근무하는 곳은?

보존처리 학예연구사가 근무하는 보존과학실은 X-선 촬영장비 등 50여종 장비가 있는 보존처리실, 사진실, 약품실, X-선 촬영실, 위험물 처리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화학약품이나 X-선 등

일부 기계장비는 인체에 유해할 수 있어 취급 면허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가야 무덤 출토상황

철제투구 출토상황

## 보존처리 방법

남원시 아영면 월산리의 가야 무덤에서는 토기, 갑옷, 말에 장착한 도구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그런데, 1,400년 전의 철제투구는 부식 등으로 원형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그러면, 어떠한 보존처리 과정을 거쳐 원형의 모습을 되살리는지 알아보자.

발굴현장에서 직접유물 수습 → 보존과학실로 이동 → 보존처리 전 상태기록 → X-선 촬영 → 녹 제거 → 탈염처리 → 건조 → 경화처리 → 접합 복원 → 보존처리 후 기록 → 특별전 유물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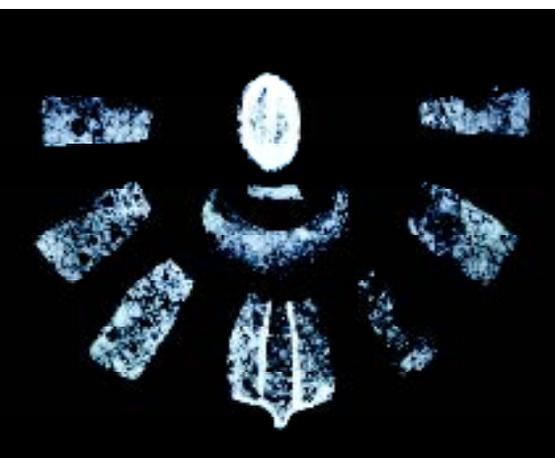
철제투구 불가리개 출토상황



발굴현장에서 직접 유물수습



보존처리 전



X선 촬영



탈염처리



접합 보존처리 후



특별전 전시모습

# 인터뷰

## 김지영 연구원

국립전주박물관 보존과학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지영 연구원은 대학에서 임산공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목재문화재보존처리를 전공하고 있다.

**Q 목재문화재 전공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고 무엇을 공부하는 곳인지 궁금합니다.**

고교시절 역사나 고고학에 관심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대학에서 임산공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문화재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임산공학을 전공하면서 목재문화재보존과학 분야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 그 분야의 교수님을 찾아 대학원을 진학하였습니다. 대학원을 다니면서 학교연구소인 “목재연륜소재은행”에서 연구조원으로 활동하였는데, 저는 주로 목재 수종 식별 작업을 하였는데, 목재문화재 연구의 기초가 수종(樹種)을 밝혀내는 것에 있기 때문이었지요.

**Q 현재 박물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박물관에서 근무하면 좋은 점들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백제 시대 목관의 보존처리 작업입니다.

박물관에 근무하면 다양한 시대와 재질들의 유물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보존처리 작업에 직접 참여하여 현장 경험을 풍부하게 쌓을 수 있는 점도 장점이지요. 또한 제가 전공하



있는 목재 분야 뿐 아니라 금속 등 다른 분야도 경험할 수 있고, 전시실이나 수장고 환경 유지 등 다양한 관련 실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Q 보존처리 학예연구직을 전공하고 싶은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한자 공부 미리 해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기초문헌자료 공부를 하면서 한자를 많이 익혀 놓으면 하는 아쉬움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 쑤오가[梭夏]사람들의 행복한 장례식

왜 행복한 장례식인가? 장례식이 어찌 행복할 수 있는가? 산 자는 산 자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죽은 자는 비록 이승에서의 생명이 다했으나 저승에서 다시 태어나니 슬프기만 한 것은 아니다. 쑤오가인들은 육신은 죽으나 영혼은 불멸한다고 생각한다. 쑤오가인의 장례식은 죽은 자의 영혼과 육신을 저승으로 안전하게 보내 다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산 자들의 각종 배려가 잘 나타나 있다. 이들은 이와 같은 과정을 마치 연극처럼 표현한다.

쑤오가 사람들은 중국 구이저우성[貴州省] 리우즈특구[六枝特區]와 즌진현[織金縣] 경계의 깊은 산 속에 살고 있는 마오족[苗族]이다. 노인들의 말에 의하면 청나라 때 청군의 공격을 받아 도망을 하여 이곳에 정착하였다고 한다. 해발 1400m-2000m의 높이의 들산 사이에 자리를 잡고 수렵을 위주로 자급자족 하였다. 중국 해방 이후 50년 동안 혼인신고를 한 사람은 거의 없었으며 마을의 형사문제도 자신들의 관습법에 의해 해결하였다. 열 두 마을에 흩어져사는 사람들은 서로의 마을을 오갈 뿐 외부와 교류하려 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러하니 1993년까지 외부 사람들은 이들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다. 그래서 쑤오가는 천 년의 신비를 간직할 수 있었다.



나는 2009년 여름 쑤오가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다. 이 마을을 방문한 이유는 여성들이 머리에 꽂는 나무빗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마을에 도착한 날 마침 여든이 넘으신 할머니의 장례식이 있었고 난 전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다.

## ortality of soul

# 靈魂不滅

이들은 사람은 죽은 후에 저승으로 가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한다. 즉, 영혼불멸사상을 가지고 있다. 장례식 전날 밤에는 영혼을 저승으로 보내는 의식을 거행하고, 다음날은 육신을 저승으로 보내는 의례를 거행한다.

해질 무렵이 되니 문상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쑤오가의 전통 복식을 차려 입은 여자들이 악대를 선두로 하여 수십 명씩 대오를 이루어 상가(喪家)로 들어서는데 마치 출정하는 군대처럼 위풍당당하다. 문상객은 모두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망자를 모신 방으로 들어와서 곡을 하였다. 이때 장중하게 울려 퍼지는 노생소리는 망자를 떠나 보내는 이의 마음을 대변한다.



커다란 나무빗

\* 지로사는 “저승 가는 길을 알려주는 종교인”을 말하는 것으로 장례식 전체 과정을 주관한다.

이 날 밤 망자의 영혼을 저승으로 이끄는 초도의식을 밤새도록 거행하였다. 그런데 망자는 저승이 초행이라 가는 길을 알지 못하니 누군가 그에게 저승 가는 길을 알려줘야 한다. 지로사(指路師)\*는 망자가 거쳐야 하는 곳의 지명을 하나하나 알려주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알려준다.

“벌레가 많은 산에 도착하였다. 자손들이 마련해 준 신을 신고 건너라.”

“큰 강이 앞에 있다. 자손들이 준 돈을 사공에게 주고 강을 건너라.”



가주오 모습. 중간에 정자모양의 집이 있고 주변에 원형 길을 따라 관을 옮기고 있다



관 뚜껑을 열고 소고삐를 망자의 손에 쥐어준다

그러나 일단 천상계에 도착한 후에는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지로사의 영혼은 천상의 경계까지만 함께 갈 수 있다. 천상에 도착한 후, 망자의 영혼은 닭을 따라서 저승으로 향한다. 이러한 과정은 밤새도록 이어진다.

장례식 날 아침, 마을 공터에 만들어 놓은 ‘가추오(嘎搓)’\*로 관을 옮긴다. 가추오는 나뭇가지를 열기설기 엮어 만든 것으로 저승 가는 길과 저승의 집을 표현한 것이다. 중앙에 정자모양의 집이 있고, 집을 둘러싸고 둥글게 길이 나 있는데 관을 맨 사람들과 상주들은 이 원형의 길을 따라 이동하여 집 중앙에 관을 내려놓는다. 이로써 망자는 저승의 집에 안전하게 도착한 것이다.

잠시 후 소를 끌고 와서는 관 뚜껑을 열고 소고삐를 망자의 손에 쥐어준다. 이날은 7마리의 소를 끌고 와 망자의 손에 쥐어 주었는데 많은 경우는 20마리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소를 잡아 저승에 가서 망자의 농사일을 돕도록 한다

이후 소를 잡아 소의 영혼이 망자와 함께 저승으로 가서 망자를 도와 농사를 짓도록 한다. 이로써 모두 의례는 끝이 나고 시신은 산으로 옮겨 매장한다.

## 왜 행복한 장례식인가?

장례식이 어찌  
행복할 수 있는가?

산 자는 망자를 저승까지 안전하게 배웅하였고, 망자는 저승에서 필요한 물품을 풍족히 챙긴다. 산 자의 마음도 가볍고 죽은 자도 부족함이 없으니 모두가 행복하다.

이렇게 쉰오가의 행복한 장례식은 끝이 난다.





## 국립전주박물관, 역사자료실

국립전주박물관의 본관 2층에 자리한 역사자료실은 전주를 중심으로 전라북도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곳이다. 역사자료실에 들어서면 먼저 웅장한 크기의 태조 어진(복제본)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조선 왕실의 분향이자 전라도의 중심인 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꾸며진 전시공간입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예향藝鄕인 전라북도를 이끌어 온 선구적 지식인들의 학문과 예술을 만날 수 있습니다.

## 전주, 조선 왕실의 분향

국립전주박물관의 본관 2층에 자리한 역사자료실은 전주를 중심으로 전라북도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곳이다. 역사 자료실에 들어서면 먼저 웅장한 크기의 태조 어진(복제본)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역사자료실이 풀어내는 이야기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에서부터 시작된다. 태조 이성계의 시조는 통일신라 문성왕(文聖王, 재위 839-857) 때 사공(司空)이라는 관직을 지낸 이한(李翰)으로, 이성계의 선조들은 대대로 전주에서 살았다. 조선 왕실의 뿌리가 전주에 있었기에 건국과 더불어 전주는 어향(御鄕), 선원구향(璿源舊鄕), 풍패지향(豊沛之鄕)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적 공간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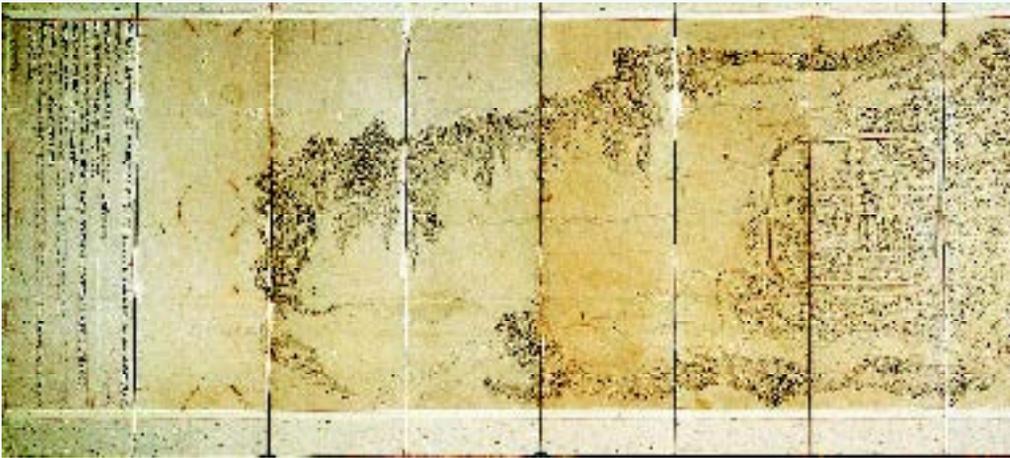
태조 이성계가 전주와 직접적인 인연을 맺은 것은 황산대첩(荒山大捷)과 관계가 깊다. 1380년 지금의 전라북도 남원 지역의 황산에서 왜구를 크게 물리치고 승리했다. 이를 계기로 전라북도 지역에는 태조 관련 신화와 전설이 생겨났다. 태조는 개선하는 길에 전주의 오목대에서 승전을 축하하는 잔치를 베풀기도 하였다. 신화와 전설, 일화들이 생겨나고 후세에 전해지면서 태조는 이 지역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다. <황산대첩비 탐본>을 비롯해 태조 이성계와 전주, 그리고 조선 왕실의 뿌리를 살펴볼 수 있는 기록들이 역사자료실의 첫 머리를 장식하고 있다.

조선의 여러 왕은 자신들의 뿌리가 된 전주를 역사적 공간으로 만들었다. 왕과 왕실 자손의 태(胎)를 묻는 길지(吉地)로 전주를 택하기도 했다.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자 할 때도, 선조들의 공덕을 기리고자 할 때도, 제국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 할 때도, 전주는 그 어느 곳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이 되었다. 영조 역시 전주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왕으로 1771년 시조의 사당인 조경묘(肇慶廟)를 건립하였다. 조경묘에는 시조인 이한과 부인 경주 김씨의 위패가 모셔졌다. 영조는 조선 왕실의 기원을 시조 이한에게까지 연결하여 왕실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했던 것이다. 영조의 어진(이모본)과 함께 전시되어 있는 <어제수덕전편(御製樹德全編)>은 영조가 조경묘를 건립하고 그 경위와 감회를 적은 글이다.



고종은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의 지위에 오른 후 '황제국'의 지위에 맞게 선조들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였다. 1899년 시조 이한의 묘역이 있었던 전주 건지산(乾止山)에 조경단(肇慶壇)을 조성하였다. 1900년에는 태조 이성계가 황산대첩에서 승리하고 축하 잔치를 열었던 오목대를 정비하였다. 이를 통해 고종은 자신의 뿌리를 확실히 하고 세계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황제국의 권위를 세우고자 하였다. <조경단비 탑본> 등 조경단과 관련된 유물들도 고종의 어진(복제본)과 함께 역사자료실에서 만나 볼 수 있다.

## ‘완판’에서 ‘완’은 전주의



완산부지도(보물 제1876호)

## 전라도의 중심, 전주

조선 개국과 함께 전주에는 전라도를 총괄하는 감영(監營)이 설치되었다. 전주부를 총괄하는 전주부영과 함께 전주부성 안에 설치되었다. 조선시대 한강 이남에서 가장 큰 성이었던 전주부성은 객사가 중심에 위치하고 그 앞쪽으로 서쪽에 전라감영, 동쪽에 전주부영이 자리했다. 이러한 전주의 위상을 여실히 반영해주는 것이 바로 역사자료실에서 전시되고 있는 <완산부지도>이다.

<완산부지도>는 전주 지역의 모습을 십폭 병풍 형식으로 제작한 지도이다. 제1폭과 10폭에는 전주의 간략한 연혁과 지리 정보를 기록하였고, 나머지 여덟 폭에 전주 일대의 지도를 그렸다. 이 지도는 19세기 말에 제작된 것으로 당시 전주의 자연 지형이나 주요 건물의 위치, 명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 자료이다. 건지산, 덕진연못 등의 자연 지형들이 표현되어 있고 오목대나 한벽당 같은 명승의 옛 모습도 살펴 볼 수 있다. 경기전, 객사, 풍남문 등의 주요 건축물들도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 지도는 19세기말에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지역명인 '전주부' 대신 '완산부'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후백제의 도읍지였고 조선 왕실의 본향이자 전라도 감영소재지라는 점에서 전주가 갖는 유구한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완산부지도>는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2015년 4월 보물 1876호로 지정되었다.

## 옛 이름인 ‘완산(完山)’

전주는 전라도의 행정적인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전라도의 바다, 평야, 산에서 나는 풍부한 물산이 모이고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던 풍요로운 도시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풍요를 바탕으로 전주는 문화예술의 중심지가 되었다. 수준 높은 공예품이 만들어지고 완판본(完版本)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서적이 출판되어 한양과 함께 조선시대 출판문화를 주도하기도 하였다. ‘완판’에서 ‘완’은 전주의 옛 이름인 ‘완산(完山)’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주에서는 50여 종류의 한글 고대 소설을 포함하여 250여 종류의 서적이 발간되어 전국적으로 판매되었는데 역사자료실에서 그 면모를 엿볼 수 있다.



## 전북의 선구적 지식인들

전라북도에는 뛰어난 서화가, 선구적 지식인들이 많이 배출된 곳이기도 하다. 역사자료실에서는 전라북도 출신 지식인들의 풍모를 그들이 남긴 유물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창암(蒼巖) 이삼만(李三晩, 1770-1847)은 이 지역을 대표하는 조선 후기의 서예가이다. 서울의 김정희, 평양의 조광진과 함께 조선 후기 3대 명필로 꼽히는 인물이며 흐르는 물과 같은 형태의 유수체(流水體)가 대표적인 서체로 알려져 있다.

이 지역에서 활동한 서화가로 석지(石芝) 채용신(蔡龍臣, 1850-1941)을 빼놓을 수 없다. 채용신은 왕의 초상화 제작에도 참여했을 만큼 뛰어난 초상화가로 알려져 있다. 조선시대 초상화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서양의 화풍과 사진술을 받아들여 자신의 초상화에 반영하였다. 정읍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주문에 의한 초상화를 다수 제작하기도 하였다.

## 고창 선운사 도솔암 마애불

나의 고향이 무장인 만큼, 어렸을 적부터 가족과 함께 선운사를 많이 찾았다. 대학에 입학해서도 모꼬지의 단골 장소 역시 선운사였다. 그럴 때면 으레 도솔암까지 산행을 하였으며, 도솔암 마애불을 보았다.

때는 1200년 3월 어느 날. 고려의 대표적인 문사이자 전주목의 관리였던 이규보(李奎報; 1168~1241)는 옥구에서 장사현으로 가는 도중 길가의 바위에 새겨져 있는 1구의 미륵상을 본다.

경신년 춘3월에 또 바다를 따라 배를 조사할 때 수촌·사호·어등·염시를 유열하지 않은 곳이 없었다. 만경·임피·옥구에 들러 며칠을 묵고 떠나 장사로 향하였다. 길가에 한 바위가 있고 바위에 미륵상이 우뚝 서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위를 쪼아 만든 것이었다. 그 미륵상에서 몇 보 떨어진 지점에 또 속이 텅 빈 큰 바위가 있었다. 그 안을 경유하여 들어갔더니, 땅이 점차 넓어지고 위가 갑자기 환하게 트이며 집이 굉장히 화려하고 불상이 준엄하게 빛났는데 그것이 바로 도솔사(兜率寺)였다. 날이 저물기에 말을 채찍질해 달려서 선운사에 들어가 잤다.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권23, 「남행일기」

미륵상에서 몇 보 떨어진 곳에 도솔사(도솔암)가 있고 선운사에 들어가 잤다는 것으로 보아, 이 미륵상은 <선운사 도솔암 마애불>로 더 많이 알려진 보물 1200호 <고창 선운사 동불암지 마애여래좌상>임을 알 수 있다.

요즘 이 마애불을 보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운사에서 출발해서 2km 남짓 호젓한 산길을 걸어야만 한다. 고려시대에는 도솔사로 들어가는 길이 큰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장(고려의 무송과 장사가 합쳐져 생긴 조선의 현)일대에서 선운사를 갈 때 도솔암을 거쳐 갔다는 주민들의 전언을 보더라도, 이 길은 선운사가 본격적으로 관광지로 개발되기 전까지도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의 고향이 무장인 만큼, 어렸을 적부터 가족과 함께 선운사를 많이 찾았다. 대학에 입학해서도 모꼬지의 단골 장소 역시 선운사였다.

그럴 때면 으레 도솔암까지 산행을 하였으며, 도솔암 마애불을 보았다. 언제 이 마애불을 보았는지 정확한 때는 기억나지 않지만, 내가 가장 처음 본 불상이 이 도솔암 마애불이었던 것만큼은 틀림없다. 이 마애불은 내가 지금 불교조각을 공부하고 있는 밑거름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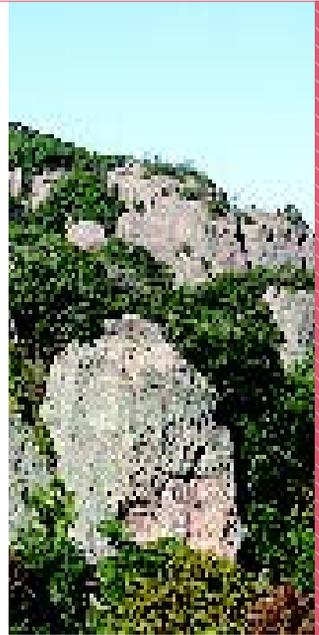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던 길가에 우뚝 솟아 있고, 1894년 동학농민군의 지도자 중 한명인 손화중(孫化中; 1861~1895)이 미륵불의 복장에서 비결을 꺼냈다는 이야기가 전하는 이 마애불이 학계에 알려진 것은 1969년 5월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유서 깊은 도솔암 마애불에 대한 번듯한 연구 성과가 지금까지 없었다. 조선시기조차도 고려전기, 고려후기, 조선시대 등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어 왔다. 최근 필자는 이 마애불에 대한 연구에서 거대함에 치중한 나머지 세부 형식의 생략과 도상의 변형이 심하고 괴체감과 세장함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1세기 중엽에 조성되었으며, 고려 현종(顯宗; 재위 1009~1031년) 즉위 이후 불교계를 주도한 법상종(法相宗)과 관련이 있는 미륵불임을 밝혔다. 논문\*을 탈고했을 때, 20년도 전에 도솔암 미륵불이 나에게 준 케케묵은 숙제를 완수한 것 같았다.

한편, 1994년에는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가 마애불 앞쪽 터를 발굴한 적이 있다. 이 발굴에서 조선시대의 연도시설과 배수로, 고려시대의 건물터가 확인되었으며, 삼국시대~조선시대의 기와, [지정(至正) 23년]이나 [도솔산중사(兜率山仲寺)] 등 명문이 새겨진 기와, 청자기 와를 비롯한 자기류 등이 수습되기도 하였다. 이는 곧 도솔암 마애불이 조성되기에 앞서 이미 암자가 들어서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뚝 솟은 바위만으로도 나약한 중생들이 의지할 수 있는 존재였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구세주인 미륵불을 새겼으니 그 원력이 8만 배 정도 더해지지 않았을까?

\* 진정환, 「고창 선운사 도솔암 마애불의 편년과 조성배경」, 『동역미술사학』 17호, 2015



# 마한, 백제와 만나다 고창 봉덕리 1호분



고창 봉덕리 1호분 조사 중 전경



고창 봉덕리 1호분 4호 석실

고창 봉덕리 1호분 4호 석실(동쪽 단벽)

고창 봉덕리 1호분은 고창군 아산면 주진천 일대에 위치한 4기의 흙무지무덤(墳丘墓) 중 하나이다. 자연 구릉을 깎아 길이 72m, 너비 50m의 장방형으로 다듬은 후 그 위에 흙을 쌓아 분구(墳丘)를 만들고, 석실분(石室墳) 5기와 옹관묘(甕棺墓) 2기를 안치하였다. 이 분구의 동남쪽에 위치한 4호 수혈식석실묘에서는 금동신발과 중국제 청자반구호, 소호장식유공광구호(小壺裝飾有孔廣口壺), 청동탁잔, 칠기 화살통, 대도, 마구류, 단야구, 은제 꾸미개, 금제 귀걸이, 구슬류 등의 각종 위세품들이 도굴당하지 않은 채 출토되었다.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의 종류와 형태, 그리고 마한 재지의 묘제인 분구묘와 백제의 묘제인 석실분이 함께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봉덕리 1호분은 5세기 중반 고창 지역의 최고 수장층의 무덤이라 할 수 있다.



고창 봉덕리 1호분 4호 석실 출토 금동신발

금동신발은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 중에서도 고구려, 백제, 신라, 왜(倭)에서 5~6세기에 크게 유행하였다. 각국의 금동신발은 문양이나 제작 방법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고창 봉덕리 1호분 금동신발은 바닥에 18개의 작은 금동 못이 박혀 있고, 신발의 발등과 뒤꿈치에서 옆판을 결합한 점 등에서 백제 금동신발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다른 백제 금동신발과 달리 발목 부분을 따로 만들어 결합시켰다는 점이 특징이며, 투조기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양을 표현하였다. 측면은 거북이등껍질문양[龜甲文]으로 구획하고 그 안에 용, 새 등을 새겨 넣었다. 바닥의 금동 못이 부착된 지점에는 6엽의 꽃잎 문양이, 바닥의 중앙에는 한 마리의 용, 뒤꿈치 부분에는 도깨비 문양이 정교하게 투조되어 있어 이 시기의 뛰어난 금속공예 수준을 볼 수 있으며, 사이사이의 빈 공간에는 사람 얼굴 모양을 작게 새겨 넣어 백제인의 해학도 엿볼 수 있다.

금동신발은 무덤 주인공의 발에 착용시킨 경우와 무덤 내의 일정한 공간에 따로 놓아두는 경우가 있는데, 고창 봉덕리 1호분 금동신발 안에서는 직물의 흔적과 뼈가 확인되어 직접 신겨 부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백제 금동신발은 서산 부장리, 공주 수촌리, 익산 입점리, 고흥 길두리 안동 고분, 무령왕릉 등 13개 유적에서 모두 16점이 출토되었는데, 고창 봉덕리 1호분 출토 금동신발은 전체적인

형태나 제작 방법, 문양에서 최근 발굴 조사된 나주 정촌 고분의 금동신발과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금동신발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으면서 실용품으로 사용하기에는 지나치게 크고 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무덤에 부장하기 위한 위세품으로 제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높은 수준의 금속공예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장인집단이나 공방이 있어야 하고, 백제 지역에서 확인되는 금동신발에는 여러 공통점이 보이기 때문에 백제의 중앙에서 이들을 만들어 각 지역으로 보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백제 영향권 내의 지배층 사이에서는 금동신발로 대표되는 장송의례를 공유하였으며, 금동신발은 지배층의 위세를 표현하는 것과 동시에 그들 간의 결속력을 다지는 매개물이었던 것이다.

한성기 백제 유적에서는 같은 시기의 고구려, 신라, 가야 유적에 비해 도자기, 자루술과 같은 중국제 물품이 많이 확인된다. 이러한 중국제 물품은 풍납토성과 같은 한성기 백제의 중심 지역 외에도 오산 수청동, 원주 법천리, 서산 부장리, 공주 수촌리 등 4~5세기의 백제계통 무덤에서 확인되는데, 금동신발의 분포 지역과 대체로 일치한다. 이것은 백제 중앙이 중국 왕조와 교류하며 들어온 최고급 사치품을 한강, 서해안, 금강, 영산강, 남해안 등 수운을 이용한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는 지방 수장들에게 나누어주며 관리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창 봉덕리 1호분 4호 석실 출토 청자반구호, 소호장식유공광구호

고창 봉덕리 1호분에서 출토된 중국제 청자반구호는 전체적으로 청록색 유약이 발라져 있다. 동체 상부에는 총 6개의 귀가 붙어 있으며, 귀의 주변에는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하여 불일 지점을 선으로 표시한 흔적이 남아 있다. 소호장식유공광구호는 4개의 소호가 중앙의 유공광구호에 이어 붙어 있는 특이한 형태이다. 또한 이 토기를 받치고 있는 기대를 따로 만들었는데, 기대의 바닥에는 7개의 둥근 구멍이 뚫려 있고 대각의 내부에는 2개의 토제구슬이 들어 있어 제의를 위해 제작된 특수 토기로 보인다.



고창 봉덕리 1호분 4호 석실 출토 청동탁전, 대도

고창 봉덕리 1호분 4호 석실에서는 이 외에도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것과 매우 유사한 청동탁전과 은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대도, 그리고 마한 재지의 단경호를 비롯하여 일본 또는 중국과의 교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소호장식유공광구호 등이 함께 출토되어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성장한 고창 지역 세력의 국제성을 엿볼 수 있다.

고창 지역에는 봉덕리 고분군을 포함하여 총 28기의 대형 흙무지무덤이 분포하고 있으며, 최근 마한 지역 특유의 원통형토기나 유공광구소호(有孔廣口小壺) 등이 집중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앞으로의 활발한 연구가 기대된다. 특히 문헌 기록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마한과 백제와의 관계, 그리고 전라북도 지역 마한 세력의 성격을 밝혀줄 수 있는 중요한 열쇠를 가진 지역으로 주목해야 할 것이다.

(사진 제공: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 전주시내에 남겨진 후백제의 흔적



1948년에 전주 시내를 촬영한 사진이다. 오랫동안 국방부가 보관해오던 것인데, 현재의 노송동, 인후동일대가 도시화되기 이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사진에서 북동방향의 흰 선은 전주에서 진안으로 가던 도로이고, 거의 동북방향으로 가로지르는 명암이 뚜렷하게 대비된 긴 선은 후백제의 도성(都城)을 이루던 성벽(城壁)이다. 사진의 중심에는 오늘날의 전주동초등학교와 신일고등학교, 서낭대이가 위치하는 곳인데, 도시화가 진행되기 이전이라서 학교가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사진 하단의 주거지역은 현재의 물왕명 지구에 해당된다. 이 지역은 오래 전부터 견훤(甄萱, 867~936)의 궁성(宮城)이 있던 곳으로 추정되어 왔다.

이 사진은 논란이 되어 왔던 후백제 도성의 연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주었다. 그동안 학자들은 동고산성(東固山城)을 후백제의 중심 시설로 보아 왔는데, 이제부터는 산이 아니라 새로 성벽이 확인된 전주 시내의 평지로 연구의 포커스(focus)가 옮겨져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 생활공간 주변에 후백제의 흔적이 그대로 묻혀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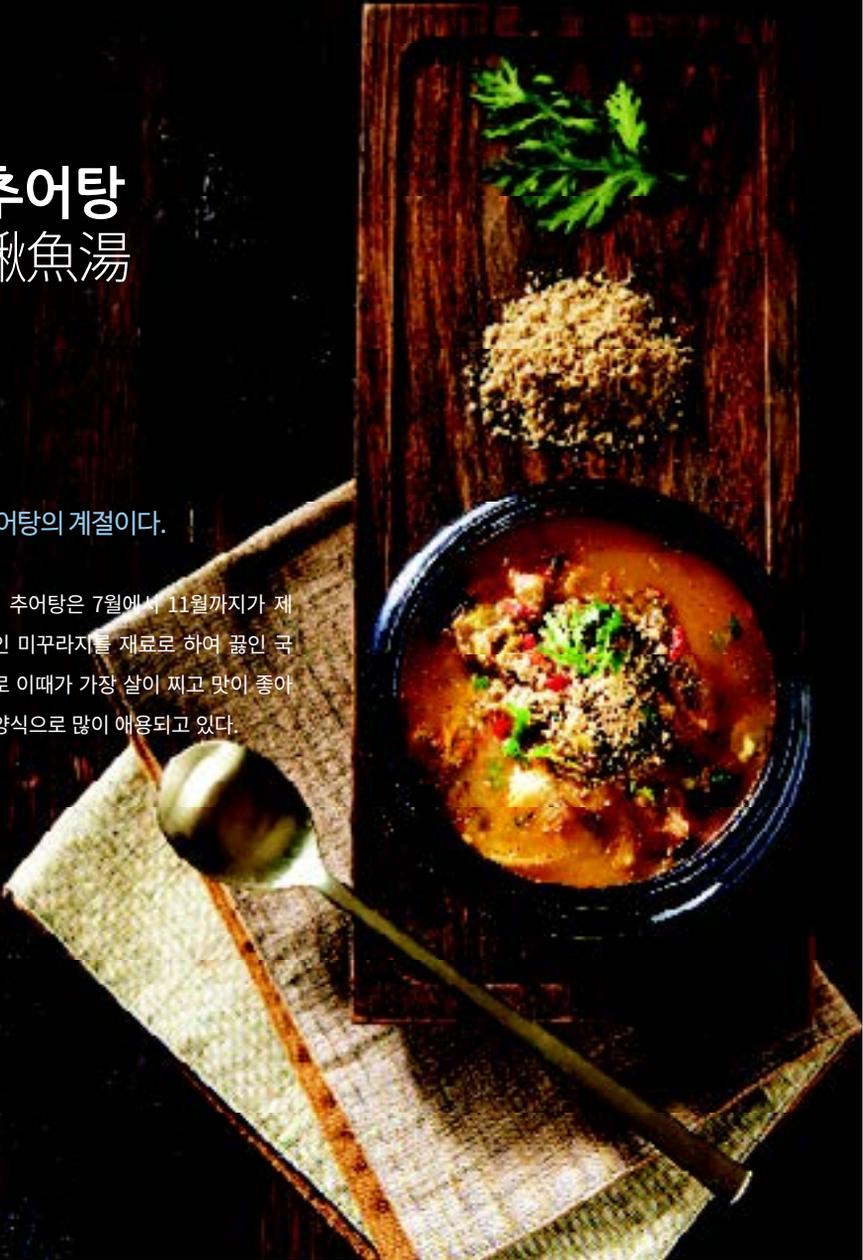
따라서 지금부터는 이것을 발굴하여 후백제 도성의 전모를 전주 시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만약 제대로 밝혀낼 수 있다면, 전주시는 새로이 왕도(王都)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전라북도는 역사의 주인공이었던 시절-후백제 시대-을 스스로 되살려내는 셈이 될 것이다.

제대로 밝혀낼 수 있다면,  
전주시는 새로이 왕도(王都)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 추어탕 鰻魚湯

추어탕의 계절이다.

추어탕은 7월에서 11월까지 제철인 미꾸라지를 재료로 하여 끓인 국으로 이때가 가장 살이 찌고 맛이 좋아 보양식으로 많이 애용되고 있다.



미꾸라지는 지역에 따라서 미꾸라지, 미꾸람지, 미꾸래미, 미꾸렁이라고도 불려왔다.

한자로는 이추(泥鱸, 泥鰍) 또는 추어(鰍魚)라고 한다. 니(泥)는 진흙 니로 진흙 속에서 사는 물고기라는 의미가 있다. 『본초강목(本草綱目)』 권44 인부(鱗部)와 『동의보감(東醫寶鑑)』 권3 「탕액편(湯液篇)」 2 어부(魚部)에도 추어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추어뿐 아니라 습어(鰐魚), 위이(委迤)라 쓰기도 하였다.

## 가장 대중화 된 추어탕은 전라도 추어탕을 대표하는 남원식 추어탕



용재(慵齋) 성현(成俔, 1439~1504)의 문집 『허백당집』 권1 부(賦)의 내용 중에 “...井蛙猶以自大 泥鱸得以相欺...”라고 이추(泥鱸)를 언급하고 있다. 이 작품은 『장자(莊子)』 「외물(外物)」에 나오는 학철부어(涸轍鮒魚)의 고사에 근거를 둔 작품이다. 이 고사는 흔히 극한 궁지에 몰려 다급하게 구원을 청하는 상황을 비유하는 말로 쓰이는데, 이 작품에서는 포부를 펴지 못하고 궁궁한 처지에 몰린 지식인을 비유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대응 방식과 가치관을 보여 주고자 한 내용이다.

그 외에 미꾸라지를 언급한 문헌적 자료는 많지 않으나 전국적으로 미꾸라지가 분포돼 있으므로 추어탕의 역사는 오래되고 대중적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추어탕은 언제부터 먹었던 음식이었을까?

추어에 대한 기록은 고려에 사신으로 온 송나라의 서경이 쓴 『고려도경(高麗圖經)』에 등장하며, 『동의보감(東醫寶鑑)』에 따르면 성질이 따뜻하고 몸을 보호하는 미꾸라지의 특성으로 인하여,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에 추어탕이 보양식의 하나로 널리 애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 초 서유구가 쓴 『난호어목지(蘭湖漁牧志)』에 시골 사람들의 별미로 언급된 밧구리죽과 선조 때(1850년 경) 실학자 이규경이 쓴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로서 「인사편(人事篇)」 복식류(服食類)에서 추두부탕(鰍豆腐湯)이란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대중화 된 추어탕은 전라도 추어탕을 대표하는 남원식 추어탕이다. 전라도 추어탕은 다른 지역과 달리 미꾸라지를 갈아서 만든다. 추어탕은 힘든 농사일에 지친 농사꾼의 보양식에서 출발해 오늘날 온 국민의 보양식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은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이다.

추어탕은 우수한 단백질과 칼슘, 무기질이 풍부한 음식이다. 곧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초가을이 돌아오니 영양 만점 추어탕 한 그릇 먹고 여름내 더위로 잃은 원기를 회복해 새로운 계절을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

# 영화 **개벽**과 동학농민혁명군의 첫 승전지

## 황토현



한국 영화의 거장 임권택 감독이 1991년에 제작한 영화 <개벽(開闢)>은 동학(東學)의 2대 교주였던 해월 최시형(1827~1898)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로 사상가 도올 김용옥 교수가 시나리오를 쓰고 한국영화사상 최장기간 촬영과 1만 명이 넘는 인원을 동원하여 화제가 되었던 숨은 걸작이다. 영화의 줄거리는 비교적 단순하나 무엇인가 말할 수 없는 애잔하고 처절했던 조선말 격동기 민중들의 절박한 저항의식을 영화 속에서 느낄 수 있다.

이야기는 동학의 초대교주 수운 최재우가 혹세무민(惑世誣民 : 세상 사람들을 속여 정신을 홀리고 세상을 어지럽힘)했다는 죄명을 받아 처형당하고 2대 교주 해월(이덕화 역)이 어렵게 동학 포교활동을 이어가는 장면부터 시작된다. 관으로부터 동학이 심한 탄압을 당하자 해월은 가족을 남겨 둔 채 태백산으로 숨어 들어갔으며, 부인 손씨(이혜영 역)와 4명의 딸들이 박해를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도어찌 할 수 없는 처지에 해월은 괴로워한다.

이후 가족이 모두 죽었으리라 생각하여 산중에서 해월은 그를 돌보던 노인의 과부며느리인 안동김씨와 결혼한다. 다소 안정을 되찾은 해월은 동지들과 동학경전을 출판하며 교세를 조금씩 넓히며 교조신원운동을 준비해 나간다. 해월은 얼마 후 죽은 줄 알았던 손씨 부인과 재회하게 되나, 조선 말기의 삼정은 더욱 문란해지고 민중의 분노는 더욱 높게 치솟게 되어 그 혼란은 1894년 3월 녹두장군 전봉준(김명곤 역)을 중심으로 한 백성기포를 시작으로 황토현전투, 황룡전투, 전주성 점령 등으로 확대되며 동학농민혁명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동학군의 진격은 1894년 11월 공주 우금치전투에서 총포로 중무장한 일본군과 이에 호응한 정부군에 의해 무참히 저지당하고, 전봉준·손화중·김개남 등 핵심지도자들이 체포되면서 혁명은 실패로 끝나게 된다. 해월 역시 밀고로 붙잡혀 1898년 서울에서 수많은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수형을 당하면서 영화는 막을 내린다.

2시간이 넘는 긴 영화는 마치 역사의 한 장면

을 생생하게 보는 듯 박진감 넘치게 전개된다. 조선말기 조세수취 구조의 모순은 농민을 궁지로 몰아넣었으며, 당시 동학은 농민들에게 새로운 사회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비록 동학농민혁명은 실패로 끝이 났지만, 우리나라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 중 하나로 조선이 근대사회를 여는 계기가 되었다. 평등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반봉건 항쟁과 민족자존의 반외세항쟁으로, 평등·자유·자치의 원칙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의 수립을 목표로 한 동학농민혁명은 미완의 혁명으로 역사에 남겨졌지만, 그 맥은 이후 항일의병항쟁과 3·1운동, 4·19혁명으로 면면히 이어져 오늘날 민주시민사회 건설의 원동력으로 이 땅에서 살아 숨 쉬고 있다.

전주와 정읍·김제·고창 등지에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가 여러 곳이다. 이 중 정읍시 덕천면에 위치한 황토현전적지(사적 제295호)는 1894년 4월 7일 전봉준이 이끄는 4천명의 농민군과 전라감영군이 싸운 최초의 전투지로 동학농민군이 대승을 거둔 곳이다. 이곳의 전투는 농민군의 사기를 더욱 고무시켜 이후 장성 황룡전투와 전주성 점령, 그리고 정부군과의 타협을 맺은 전주학악으로 이어지는 계기를 이루었으며 농민봉기의 전개과정에 큰 영향을 주었다. 현재 황토현전적지에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과 기념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교과서에서 느낄 수 없는 선인들의 숭고한 정신이 곳곳에 깃들어 있다. 지금도 코스모스가 가득 핀 넓은 황토현 들뜰에 들어서면 영화 <개벽>을 보면서 숨죽이며 느꼈던 동학농민혁명군의 의로운 함성이 들리는 듯하다.



## 윤슬 같은

‘와! 환상적이다.’ 홍매 사진  
 집을 본 사람의 외출기 탄성.  
 죽을 같은 어두운 가지 끝에서  
 틈새에서 틈새로 꽃무리, 그  
 생명의 힘을 어찌 한마디로  
 말해버릴 수 있을까. 아름답  
 다움은 어디서 온 것인가.  
 생명의 창조자는 누구인가.  
 말끝의 의미를 잃고, 단지  
 말 없는 꽃 빛의 속내에 젖  
 어볼 뿐이다.



몇 번의 초봄에 가서 흑시나 했지만 조우하지 못했다. 바로 일주일 전에 화엄사 주변 암자의 양지에서 어린 홍매와 토종 백매만으로도 향홀했다. 그때 각황전 옆의 홀로 홍매는 겨우 한두 송이 피기 시작하였다. 화사하게 피울 홍매의 수관을 상상하며 꽃봉오리를 머금은 가지를 올려다보며 조마조마했다. 그런 뒤, 오늘 다시 갈 기회가 생겼다. 법고각 옆에서 각황전을 향해 눈길을 올린 순간, 가슴에서 확 윤슬이 일기 시작했다. 환하게 붉은빛이 나를 향해 반사하는 것 같았다. 초봄 카페에서 본 호연의 윤슬이 절묘하게 매화 꽃송이 같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은하수가 쏟아져 내려앉은 별빛’, 그런 윤슬이 각황전 뒷산을 배경으로 붉은빛을 뿌리고 있었다. 바로 윤슬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빛부신 잔물결처럼. 부서지는 꽃빛 윤슬에 눈이 시렸다. 가까이 가서 일주일 전에 보았던 봉오리들인가 하고, 활짝 핀 꽃들과 반개한 봉오리들까지 자세히 보고 또 올려보았다. 전각의 처마 단청에 절묘하게 걸친 꽃가지들에게 환상적이라든가 쉬운 말을 토해낼 수가 없었다. 환하게 가슴에 안겨서 피어나는 꽃들이 전각 지붕 사이를 수놓았다. 너무 붉어 흑매라고 불린다는 홍매 나무의 수관을 밑에서 올려보고 옆에서, 담장 너머에서, 전각 뒤까지, 탑들이 하듯 아름다운 자태를 탐미했다. 한순간에 빛나고 흩어질 윤슬을 붙잡기라도 할 듯, 그 빛나는 홍매의 윤슬을.

사군자 화(매난국죽)는 오랫동안 선비 정신을 나타내는 그림의 소재였다. 탈속한 선비의 으뜸이었던 당나라 시인이었던 맹호연의 고아한 ‘탐매(探梅)’ 고사도는 유명하여 뒤에 많은 묵객들에게 탐매도(探梅圖)를 남게 했다. 매화는 사군자의 하나로 오래전부터 선비와 화가들 사이에서 중요한 화목(畫目) 중의 하나였다. 월매도, 설매도, 연매도 등이다. 조선 중기 어몽룡의 <월매도>는 우리나라 5만 원 지폐에 당당히 인쇄되었을 정도다.

맹호연의 ‘탐매’ 이후, 많은 시인 묵객들이 매화를 추종하는 버릇이 생겼다. 시대를 넘어 조선의 시인 묵객들로 이어져서 많은 시와 그림으로 탐매도를 남기고 있다. 그 영향은 현대의 우리나라 탐매꾼들과 사진작가들에게도 고매(古梅) 작품을 줄줄이 탄생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나도 화엄사 홍매와 인연이 당기를 바랐다.

옛날에는 매화가 귀해서 산속으로 탐매를 나섰겠지만, 오늘날은 개량 매화 농원이 많아서 초봄에 섬진강을 낀 마을마다 산기슭은 하얀 꽃구름이 내려앉은 것 같지 않은가. 지금도 옛 선비들의 홀로 고매(古梅)가 전국 곳곳에 남아서 그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화엄사의 홍매도 통도사 홍매와 단속사지 정당매와 산천재의 남명 매화와 더불어 이름난 매화 중의 하나다.

아름다움은 항상 존재하지 않아서 시공간의 거리 안에 존재함이다. ‘이별이 미(美)의 창조자’라고 말한 한용운의 글이 참으로 오묘한 의미로 다가온다. ‘아름다움이란 세상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절대미(絶對美) 그 이상이란 뜻’이라. 그 절대미야말로 이별이 만들어내는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창조미(創造美)라! 꽃이야말로 단절의 슬픔이 만들어내는 절대미인가.

각황천 아마타불의 법문일까. 법신불의 화신 중의 하나인 홍매화일지니. 몇 백 년의 세월 동안 온갖 풍상과 시련을 넘어 살고 있는 홍매화 나무. 수많은 사람의 기원과 화엄 사찰이 지녀온 사연, 이별의 사연들까지 꽃잎으로 피어나지 않을까.

사람이 꽃 중의 꽃이라면 이별하지 않는 꽃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그 언젠가 세상을 이별해야 하는 운명 앞에서라면..... 어차피 한순간의 환(幻) 같은 인생일진대, 윤슬 같은 빛 무리를 드러냈던 생의 어느 순간이 있었다면 세상살이의 보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름다움이란 세상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절대미(絶對美)  
그 이상이란 뜻’



부안청자박물관은 전라북도 부안군(扶安郡) 보안면(保安面) 유천리도요지(柳川里陶窯址, 사적 제69호)터에 위치하고 있다. 이 가마터 위에 일제강점기인 1941년에 유천초등학교가 개교하여 1999년 12월 정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방침에 따라 폐교 되었다. 박물관은 유천초등학교가 폐교된 이후에 청자박물관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지금의 청자박물관 입구에는 옛 유천초등학교 자리 표지석이 있다. 이 도요지 터는 11~14세기의 고려 시대 청자가마터 40여 곳 중 5기가 발굴된 곳이다. 박물관 외형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상감국화닝쿨무늬차잔(국보 제115호)을 형상화했다.

## 부안청자박물관 이모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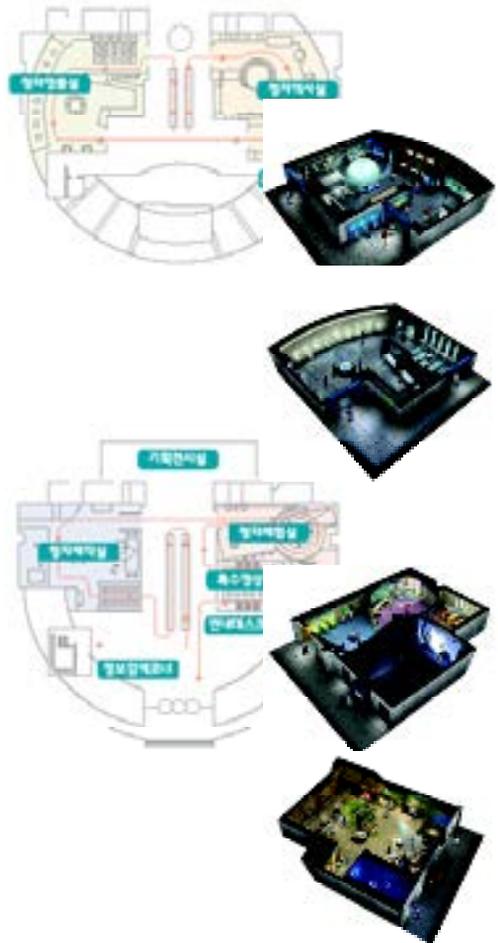


전라북도 부안군 보안면 청자로 1493에 위치한 부안청자박물관은 2006년 건립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 12월 건물을 준공하였으며, 2011년 4월 7일 개관하였다. 67,097㎡의 부지에 전시동을 비롯하여 도예체험동, 가마보호각 2동, 도예창작스튜디오 등이 있다.

본관 건물인 전시동은 5개의 전시실 수장고 및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시동 왼쪽으로는 도예체험동이 위치하고 있다. 주차장 건너편에는 지상 2층인 도예창작스튜디오가 위치하고 있는데, 창작실 4동, 가마실1동, 숙박시설 2개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안청자박물관 전경



2층 관람코스 안내

1층 관람코스 안내



부안 청자박물관 전시실 내부 모습

청자박물관 전시실에는 부안군 유천리·우동리·진서리에서 출토된 청자 및 청자 편들이 전시되어 있다. 가마터 및 청자 제작 과정을 재현한 모형세트들이 청자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전시동 1층은 청자제작실, 청자체험실, 특수영상실 등 총 3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청자제작실은 청자 제작 과정, 가마의 운영과 구조, 옛날 청자 운반 방법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다. 청자체험실은 상감기법 체험, 청자 만져보기, 청자 문양 스탬프 찍기, 청자 브레인 서바이벌, 청자 이음지어보기 등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수영상실은 부안 및 한국 청자 이야기를 주제로 한 입체애니메이션을 상영하는 4D 효과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관람객에게 청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층 청자명품실에서는 순청자와 상감청자 등 중요도가 매우 높은 고려청자 30여점이 전시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전시품은 고려청자의 전성기인 12~13세기 부안에서 생산된 것들이다. 청자역사실에서는 한국 도자기와 고려청자의 역사, 유천리 가마터의 발굴 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전시하였다. 전시동 뒷편 언덕에는 유천리에서 발굴된 제7구역 1호와 5호 가마가 복원되어 있다.



박물관 본관 왼쪽 위에 위치하고 있는 유천리 제7구역 5호가마 복원각 모습

복원된 5호가마의 내부 모습



청자제작실 전경

부안청자박물관은 2011년 개관 이래 매년 지역의 다양한 문화재와 도자문화를 주제로 한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는데, 2012년에는 개관 1주년 기념특별전으로 “천년 부안 고려청자의 발자취”를, 2013년에는 “새로운 시각으로 본 청자전”을, 2015년 6월에는 “부안도예가 협회 회원전”을 개최하였다. 2015년 하반기에는 “김완식선생 기증·기탁 유물전”과 전라북도박물관·미술관협의회 지원 사업으로 “부안 트랙에 핀 문화 예술의 향연” 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체험프로그램

부안청자박물관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도자기 만들기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자기 만들기 체험은 “자신만의 오리지널명품 만들기”란 주제로 진행되는데, 이 체험프로그램은 휴관일을 제외하고 1일 총 4회가 실시된다. 체험재료를 구입하여야 하고 완성된 도자기를 받는 택배비용 등 약간의 경제적인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자신만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도자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박물관을 찾는 많은 관람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로 개관 5주년을 맞이하는 부안청자박물관은 기존에 미비하였던 소장품 확보 및 연구 역량 활성화에 주안점을 주고 있다. 약 2,800여점에 불과한 소장품 확대를 위해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약 400여점에 다다른 부안출토 청자를 최근에 차용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학술 역량 강화를 위하여 부안 유천리 제12호 청자가마에 대한 학술조사 사업도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된다면, 부안청자박물관은 우리나라의 청자 문화를 배우고, 느끼고, 체험하는 우리나라 도자문화의 소중한 역사 공간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 부안청자박물관 한정화 학예연구사

### Q. 부안청자박물관과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요?

부안청자박물관하고 인연을 맺기에 앞서 부안청자하고 인연이 닿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90년 원광대학교에서 고고미술사학을 전공하였습니다. 대학교 1학년 방학 때 겁도 없이 발굴 현장을 지원했는데 마침 부안 진서리 청자가마 발굴터였습니다. 현장에서 첫 발을 디딘 게 부안청자 가마터였고 청자전공을 하려고 마음먹었던 건 아니었는데 대학에서 첫 인연 맺은 게 부안청자라 정이 갔습니다. 대학 3년이었던 93년, 졸업이후 원광대 박물관 조교로 있었던 97년, 98년 박물관 옆 부지 발굴 현장에도 참여하고 석사논문을 썼고 고고학 분야 가마터 요지 발굴 관련 일을 이어가면서 이곳에 박물관이 지어진다면 꼭 일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2009년부터 부안청자박물관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학부 공부를 하며 밤에는 발굴했던 유물파편이 있었던 마한·백제연구소에서 보고서 작업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청자전공을 선택하

였고, 발굴 현장외에는 댄 길에 대해 생각할 겨를 없이 청자가 정말 재미있다고 느꼈습니다. 학에서 채용공고가 났을 때 망설임이 있었지만 결국 부안 고려청자는 학문의 처음이자 늙어 죽을 때까지 들고 있어야 할 학과 같은 존재인데 그것을 포기한다는 건 재미없는 일이고 여기 오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힘들어서 사람을 붙들고 울진 않았지만 유물 파편을 붙잡고 울만큼 여자가 공부하기에는 힘든 학문이고 즐길 수 없다면 힘든 길입니다. 그래도 내가 좋아서 선택한 길이기엔 나는 지금도, 아직까지 즐기고 있습니다.

### Q. 왜 파편을 부각시키셨는지요?

당시 온전한 청자는 주인을 찾아 갔지만 가마터 유적에 남아 발굴된 유물은 실용성이 떨어져 남겨진 것이기에 가마터의 유물은 불량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소가 없는 유물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유물뿐 아니라 유적지와 연결하여 봐야하며 유적지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가마터가 집중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부안이 국가 사유지였다는 것을 알려야만 비로소 부안고려청자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전시관에서 파편들의 의미를 부각시킨 이유입니다. 보편적으로 복원된 완형의 청자를 전시하고 파편 자체를 전시하는 곳은 많지 않지만 학술적 가치를 인정하고 문화유적지 자체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접근한 것입니다. 깨진 파편을 붙잡고 왜 그럴까 싶겠지만 진품과 가품, 수백억씩 하는 높은 가격에 대중적 관심이 많아 문화재를 단순히 상품적 가치로만 접근하는 고정관념을 깨고 중화시키기 위해 파편의 중요성에 대해 많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Q. 그간 박물관 업무가운데 가장 생각이 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작년 문화재청 공모사업 중 ‘문화재지역주민 공감정책’ 사업입니다.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보안면 유천리는 청자가마터로 개발행위와 땅을 사고 팔거나 집을 수리하는 것조차 제한되기 때문에 정착 대부분의 주민들은 개인재산권 침해로 인해 문화재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천만 원 남짓의 적은 사업비용이었지만 보안면 주민을 대상으로 청자관련 강연도 하고 버스를 대절해 청자를 지역문화콘텐트로 성장시킨 강진청자 박물관과 강진청자축제를 관하며 부안고려청자도 강진 못지않은 훌륭한 문화재라는 것을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 강연 때 보안면 주민들은 문화재법과 관련하여 성토했듯 질문을 쏟아냈지만 직접 강연 참석전화를 하고 자주 얼굴을 보고 익히고 간식도 같이 나눠 먹으며 이웃 같은 느낌으로 가까워 졌던 의미가 크게 남은 사업이었습니다. 유적지 주변의 주민부터 생각이 긍정적으로 달라져야 부안고려청자가 대내외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고 봅니다.

### Q. 고려청자를 재현하기 힘든 이유는 무엇인지요?

고려청자는 불의 온도에 민감하기에 전체적으로 일정한 색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불의 온도는 사람의 기술에 따라 다르기도 하겠지만 바람, 날씨, 계절, 뿔나무 등 많은 변수가 많기에 자연환경 자체가 바뀐 지금 고려청자를 재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누군가 평생을 걸고 매진한다면 언젠가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가능하다면 박물관을 중심으로 고려청자를 재현하기 위한 인간문화재 만들기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전승에 관심 있는 젊은 인재들을 키우는 국가적인 지원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도예가가 도자학자의 이론을 바탕으로 청자를 구현하고 불덕 과학자는 모든 경우의 수를 실험해 이 과정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객관화 한다면 당시 고려청자 제작방식에 가장 가까운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국가적인 재산이 될 것입니다.

### Q.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인지요?

내 꿈은 많지 않습니다. 현재 부안청자박물관이 세워져 운영되고 있는데 그 다음 단계로 박물관을 중심으로 주변을 사적공원화 하는 것입니다. 1998년도에 발굴된 곳 중에 유물을 포기하고 그대로 남겨둔 곳을 관람객들이 밖에서도 부안의 고려청자를 보고 밟고 만져볼 수 있는 오픈형 박물관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박물관 반대편에 발굴 예정인 곳이 있는데 당시 최고 장인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려상감청자를 제작했던 곳으로 발굴현장도 직접 관람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이 자리를 잡고 활성화가 된다면 부안고려청자와 강진청자를 함께 한국 고려청자 유적지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켜 고려청자의 우수성을 세계로 알리고 싶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면 내가 죽어 없어져도 부안고려청자를 유네스코에서 지원, 관리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계문화유산까지가 내 꿈인데 멀지 않고 향후 10년을 바라보며 진행 중입니다.

## '찾사발'의 모양을 띠고 있는 부안청자박물관

전라북도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영전사거리에서 곰소를 잇는 도로에 '청자로'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한가로울 정도로 눈밭이 이어지는 이 도로 위에 유일하게 그 이름에 걸맞아 보이는 부안청자박물관이 자리 잡고 있다. 한적한 시골에 박물관이라니, 어울리지 않겠다 싶지만 이곳 부안청자박물관 일대는 고려 시대 토기나 도자기를 구워내던 청자가마터(陶窯址)로 전남 강진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려청자 생산지였던 만큼 그 의미가 깊게 느껴지는 곳이다. 박물관이 세워질 정도로 부안 고려청자가 특별한 이유는 고려청자가 가장 아름답

다웠던 전성기에 화려한 상감기법 함께 이야기가 있는 그림을 자기에 담아 제작할 만큼 독창적이고 아름다웠기 때문이라고 한다.

국보 제115호로 지정된 청자상감당초문완(靑磁象嵌唐草文碗)을 형상화한 청자박물관 외관 전체는 파란 가을하늘색의 인상적인 건물로 '청자로'의 의미를 알리듯 청자의 비색(翡色)과 닮아 있다. 입구에 설치된 박물관 대표유물인 '청자국화무늬 표주박모양주전자'의 조형물과 크게 확대된 청자 대접 모양의 박물관 건물이 함께 보이는 전경은 시



각적 재미를 더하며 기대를 높인다. 전체 외형뿐 아니라 박물관 곳곳에서도 고려청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특히 전시실에서 조감으로 볼 수 있도록 유리바닥 아래 전시된 자기 파편들은 천년의 세월동안 땅 속에 잠들어 있던 기억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는 듯하다. 부안청자박물관이라는 첫잔에 기법, 색, 무늬 등 그 시대의 청자라는 존재를 최대한 담아 세심하게 전달해 준다.

이렇게 고려청자의 전모를 꼼꼼하게 담아낸 박물관은 청자제작실, 청자체험실, 특수영상실, 청자역사실, 청자명품실 등 관람과 체험을 위한 공간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청자제작실에 들어서면 바다에서 보물을 인양하는 영상과 함께 유리바닥 안에는 발굴당시를 재현한 해저유물과 실제 크기의 모형으로 꾸며진 청자 제작 과정을 실감나게 관람할 수 있다.

청자체험실은 청자 퍼즐마추기, 청자 브레인서바이벌, 청자 이름지어보기 등 아이들 위한 재미있는 체험공간으로 청자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청자명품실에서는 아름다운 청자의 자태와 다양한 유물들을 통해 청자로 만든 첫잔뿐 아니라 피리, 베퀴, 의자, 바둑판 등 청자와 함께 했던 고려시대의 자기문화(磁器文化)를 조금이나마 상상할 수 있다. 정적인 박물관이라는 생각과 달리 특수영상실은 부안의 상감청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재미있게 풀어낸 이야기를 4D입체영화로 감상할 수 있는 시설까지 갖추어져 있다.

도자기체험실에서는 전문 강사의 도움을 받아 서투게 물레를 돌려 흙의 모양을 빚고 무늬를 새겨 넣어 도자기를 만들고 한 달 정도 후에 비색의 청자 빛깔로 구워져 체험자에게 전달된다. 가마에서 구워지는 도자기를 직접 볼 순 없지만 본인이 청자를

만들어 소유할 수 있는 체험은 청자의 빛깔만큼이나 특별한 일이다.

고려청자는 부귀와 내세에서의 안정된 삶을 기원하며 귀하게 여겨지는 비취옥을 대체하기 위해 옥 빛깔을 닮게 만든 중국의 비색청자(秘色靑瓷)에서 출발하였지만, 물총새 ‘비(翡)’자를 쓸 정도로 중국과는 다른 고유한 색깔을 만들어냈으며, 고유의 상감기법으로써 독창성을 지녔기에 지금까지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고 한다.

비록 고려시대 하늘을 닮은 청자를 지금은 재현할 수 없지만, 부안청자박물관에 가득 채워진 다채로운 고려청자를 통해 고려로의 시간 여행을 떠나 보시기 바란다.



## 청자의 비색(翡色)과 담아 있다



#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개관 80주년 기념 소장품 특별전 〈조선백자〉에 다녀오다

비오는 토요일 내가 찾은 박물관은 서울 신촌에 위치한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이하 이대박물관)이다. 개관 80주년을 기념하여 마련한 <조선백자> 특별전을 보기 위해서였다. 이대박물관의 명성과 소장품에 대한 기대 때문에 이 전시는 꼭 시간을 내어 봐야지 마음먹었던 터라 토요일 오후 붐비는 인파를 뚫고 힘겹게 전시를 만날 수 있었다. 교정에 들어서자 펼쳐지는 드넓은 공간과 아담한 동산, 그리고 한쪽에 고즈넉이 마련된 박물관 정원은 휴식과 여유를 주기에 충분했다.

1990년에 이화여자대학교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신축 개관하였다는 현재의 박물관 건물은 위풍당당 그 자체로 1, 2층 상설전시실을 모두 할애하여 다양한 백자를 소개하고 있다. 이대박물관은 1935년 신촌 캠퍼스의 한 연구실에서 교수와 학생이 수집한 한국민속품을 전시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어 2015년 올해 개관 80년이 되는 역사적인 날을 맞은 것이다. 이대박물관 소장품 가운데 가장





국보 제107호 백자 철화 포도문 향아리

보물 제644호 백자 청화 송죽인물문 향아리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장르는 도자로 그 가운데 조선시대 백자는 15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의 흐름을 보여 줄 수 있을 만큼 다양하기로 그 명성이 높다. 이번 전시에 출품되는 유물은 무려 600여점 이상으로 1, 2층 전관에 전시하게 되었으니 단일 백자 전시로는 국내 최대 규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 전시는 ‘조선왕실의 백자’, ‘백자에 담긴 출생과 죽음’, ‘문인문화의 유행’, ‘무너져 보는 상징과 의미’, ‘지방 백자’ 등 모두 5주제로 구성하여 500년간 조선이 추구했던 왕조의 이념은 물론이고 백자의 다양한 조형미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대박물관이 꾸준한 관심과 노력으로 이루어 온 가마터 발굴의 성과들도 함께 선보이고 있어 80주년 기념 특별전에 걸 맞는 전시의 위상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2층의 독립된 공간에 홀로 그 자태를 뽐내던 국보 제107호 <백자 철화 포도문 향아리(白磁鐵畫葡萄文壺)>의 위력은 그 공간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었고 그 대단한 기운과 감동이 아직도 가시질 않는다. 잘 만들어진 작품 하나가 이렇게 오랜 시간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구나 느끼게 하는 작품이었다.

50cm가 넘는 키 큰 백자 향아리를 화폭삼아 산화철 안료의 농담을 달리하여 생생한 포도송이와 넓은 포도 잎, 넝쿨을 돌려가며 그려 넣었다. 이러한 대형의 당당한 형태를 갖추기도 쉽지 않았을 터이지만 색을 내기 어려운 철화 시문장식이 이렇게도 절묘하게 표현된 예는 아마도 전무후무하지 싶다.



전시실 내부 모습

1층에서는 백자 달항아리를 비롯하여 순백의 조선백자들이 시선을 사로잡았으며, 백자와 일월 오봉도(日月五峰圖)가 함께 전시된 공간은 조선 왕실에서의 백자의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백자로 만들어진 태항아리(胎壺), 명기(明器)와 묘지(墓誌)를 통해 출생과 죽음을 동일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조선인들의 삶을 오롯이 느낄 수 있었으며, 다양하게 제작된 제기에서는 유교의 정치 이념 아래에서 예(禮)를 중요하게 여기고 실천했던 조선과 조선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전시에서 단연 돋보이는 것은 푸르름을 머금은 청화백자(靑畵白磁)들일 것이다. 흰 색의 백자에 코발트 청화 안료로 장식하여 만들어진 청화백자에는 실제 사용자였던 조선 시

대 학자이자 관료인 사대부들의 미감이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이 가까이 했던 시와 문장, 그림들이 고스란히 담겨졌는데, 특히 보물 제 644호로 지정된 청정한 소나무와 그 아래의 인물을 묘사한 <백자 청화 송죽인물문 항아리>에서는 그 절정을 이룬다. 또한 사대부 문인들이 가까이 두고 사용하였던 문방구들이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는데, 거북이모양 연적들은 거북이들이 실제 헤엄치듯 생동감 있게 만들어졌다.

그 외에도 십장생, 모란, 불수감, 수복문(壽福文) 등 장수, 부귀 등 길하고 상서로운 바람을 담은 문양들로 장식된 청화백자들을 대할 때는 ‘이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구나.’ 피식 웃음 짓기도 하였다. 2층의 한 코너에서는 이대박물관의 가마터 발굴 자료들도 감상할 수 있어, 80년 시간동안 우리

문화재를 수집·연구·보존하기 위해 어떻게 활약했는지 그 성과도 알 수 있었다.

요즘 전시에서는 단지 유물과 설명문만으로 관람객을 사로잡을 수 없기에,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더욱 호기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관찰할 수 있는 기회들을 다른 전시 매체들을 통해서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간혹 그 주객이 전도되어 전시를 보고 나서 실제 유물보다는 그 매체들의 기억만 남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그런데 이번 전시에서는 절제되면서도 핵심적으로 유물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도록 마련된 디지털 매체들로 인해 전시를 보는 재미가 배가될 수 있었으며, 관람객들의 지적 호기심과 학습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도 되었다.

흔히 백자, 조선백자라고 하면 유교 이념의 실현으로써 검소·겸약·절제를 상징하는 매우 하얀 색을 띠는 그릇 정도로만 알기 쉬운데, 조선백자가 얼마나 다양하게 제작되고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누가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등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 전시 기간 중에는 조선백자 특별전 외에도 이대박물관의 80년사를 알 수 있는 전시와 이대박물관의 대표 명품인 담인복식미술관의 소장품으로 꾸며진 <조선시대 예복과 장신구> 특별전도 함께 진행되고 있어 이대박물관의 이모저모를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정화백자 거북이형 연적

## 전시기간

2015.5.27.(수) ~ 2016.1.30.(토)



# 일본 이시카와현립역사박물관 같이 둘러보면 좋은 곳

오는 9월 일본 이시카와현립역사박물관(石川縣立歴史博物館)에서 ‘조선시대 향연과 의례’라는 주제로 우리 문화를 알리는 특별전이 열린다. 이 전시는 자매관 교류 25년을 기념하는 전시인데, 앞서 20주년을 기념하여 2011년에 ‘평화와 번영 에도시대 이시카와 문화’전이 국립전주박물관에서, 2006년에는 ‘한국문화의 진수 - 전라북도의 역사와 문화’전이 이시카와에서 열린 바 있다.

1990년 개관한 국립전주박물관은 일본의 박물관 가운데, 우호협력관계를 맺을만한 박물관을 탐색하였는데, 규모나 문화적 특징 등이 가장 유사한 곳이 이시카와현의 가나자와시(金澤市)였다. 전주가 조선왕실의 본향으로 전통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는 만큼 가나자와시 역시 에도시대의 문화와 정취가 가장 잘 남아 있는 곳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동해와 맞닿아있는 이시카와지역은 역사적으로도 한반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다. 727년, 일본으로 간 발해의 사절이 당도한 곳이 이곳이었다. 이후 발해는 220여 년 동안 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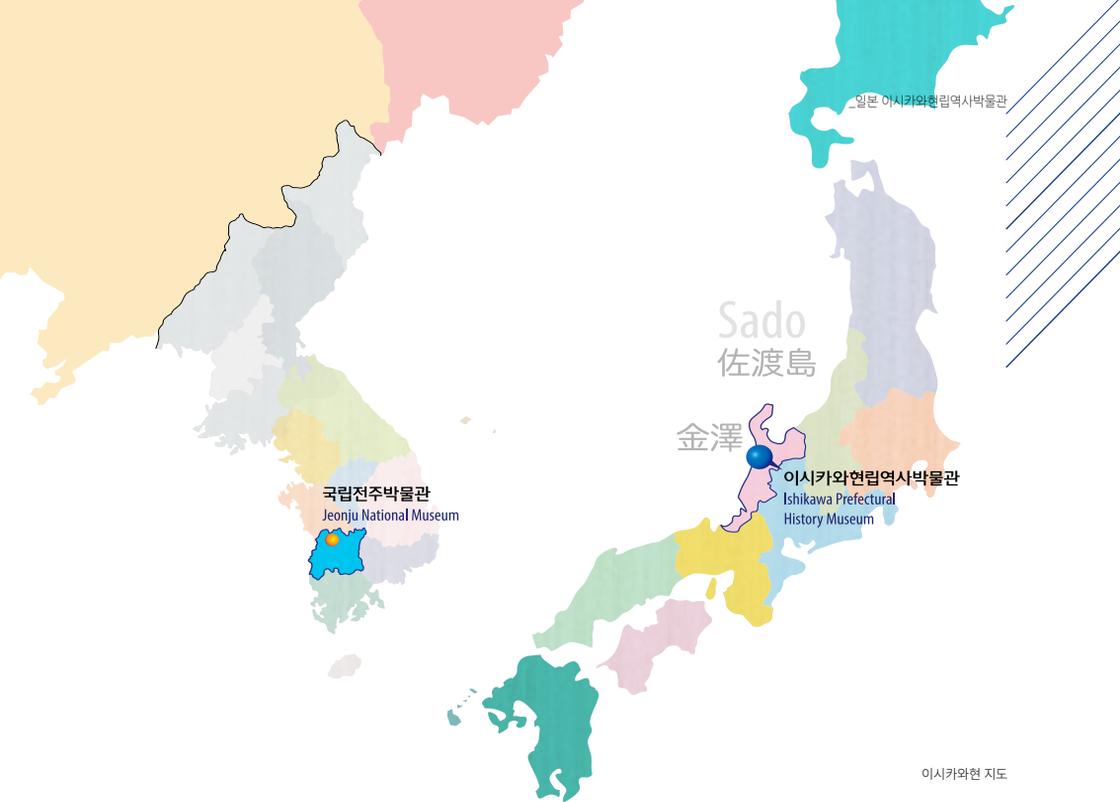
사절을 34회나 파견하였다. 746년에는 1100명의 민간인이 이시카와에 정착하기도 하였다.

이후 가가(加賀)와 노토(能登)에는 발해인들이 많이 거주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국립전주박물관은 이시카와현립역사박물관과 자매관 협약을 추진하여, 1991년 국립박물관 최초로 국외 박물관과 자매관 협약을 맺게 되었다. 이후 25년 동안 연구원 교류, 전시품의 교환전시, 학술심포지엄 개최, 기획특별전 개최 등 지속적인 교류를 맺어왔다.



이시카와현립역사박물관 소장 발해 기와



이시카와현 지도

국립전주박물관과 이시카와현립역사박물관이 자매교류를 실시한 10년 후에 전라북도도 이시카와현이, 전주시와 가나자와시가 우호협력관계를 맺게 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전주를 거점으로 하는 전주방송이 역시 가나자와를 기반으로 한 가나자와테레비와 자매관계를 맺는 등 박물관에서 시작된 교류는 관을 넘어 민에까지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이시카와현은 일본 혼슈(本州) 중앙에 불쑥 튀어나온 노토반도에 있는데, 이시카와를 포함하여 니카타현, 도야마현, 후쿠이현을 일컫는 호쿠리쿠(北陸)지역으로도 불리기도 한다. 이시카와현은 이러한 호쿠리쿠지역의 중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시카와현은 가가와 노토가 합쳐져서 형성된 곳인데, 특히 가가지역은 에도시대 ‘백만 석의 영지’라는 이름을 얻을 정도로 풍요로운 땅이었다. 에도시대 가가번(加賀藩, 지금의 이시카와현 남부)은 번주인 마에다 가문(前田家)의 통치하에 천혜의 자연환경을 토대로 발전하였다. 이어 3대 번주인 마에다 쓰나노리는 막부의 경계를 피하기 위해 문화장려책을 폈는데, 이때 가면음악극이 번성하였고 금은박, 칠기, 염색, 도자기 등이 발전하여 일본 미술공예왕국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이시카와지역의 문화유산은 별다른 전쟁과 재해의 피해 없이 지금까지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

자매관 교류 25년을 기념하는 전시 ‘조선시대 향연과 의례’ 특별전  
\_이시카와현립역사박물관( ) <http://ishikawa-rekihaku.jp>



이시카와현립역사박물관 1동~2동 사이

## 이시카와현립역사박물관

이시카와현립역사박물관은 겐로쿠엔 남쪽 혼다노모리 숲 공원에 위치한다. 3개의 붉은 벽돌 건물로 메이지부터 다이쇼(1867~1926년)에 건축된 구일본군의 무기고를 개조한 것이다. 패전 후에는 가나자와 미술공예대학 건물로 이용되었다. 1981년 역사박물관으로 이용하기로 결정되었으며, 1986~1990년 5년에 걸쳐 리모델링하여 이시카와현립역사박물관으로 개관하였다. 최근에는 호쿠리쿠 신칸센의 개통에 맞춰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하여 새롭게 단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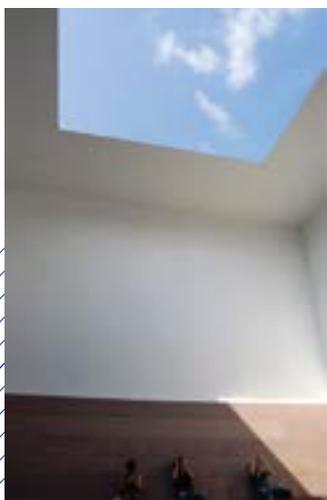
## 21세기미술관

세계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가나자와의 핫플레이스라고 하면, 단연코 21세기미술관이다. 이 미술관은 건축가 카즈요 세지마와 류에 니시자와가 설계한 것으로 지름 113m의 원형 건물로 외벽은 유리로 되어 있는 특이한 건축물이다. 이 미술관에서는 세계의 유명작가의 작품뿐만 아니라 동시대 일본 작가, 지역과 어린이를 주제로 한 전시품으로도 유명하다.



## 시라카와고(白川郷)

하쿠산의 동쪽에 위치한 시라카와고는 행정구역상으로는 기후현에 속하지만, 가나자와에서 가는 교통편이 매우 편리하다. 시라카와고는 일본 전통의 '합장식 가옥'으로 유명한 농촌마을이다. 합장식 가옥은 겨울철 많이 내리는 눈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 석재와 목재를 활용하여 수 미터에 이르는 가파른 지붕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보존이 잘 되어 있는 시라카와고의 가치가 인정받아 1995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21세기 미술관 Blue Planet Sky\_James TURRELL 2004, <http://www.kanazawa21.jp>

# 국립전주박물관 시설대관 안내

국립전주박물관에서는 국공립기관, 기업, 동호회, 시민단체 등의 각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설공간을 대관하고 있다.

## 대관시설

### 강당

면적 : 360㎡

좌석 수 : 234석

무대규격 : 1,000(가로)×500(세로)

현수막규격 : 600(가로)×90(세로)

대관료 : 56,400원(1일 기준)

\* 전기료별도(냉. 난방사용료)



프로젝트 : 사용가능  
노트북 : 개인지참

음향시설 : 사용가능  
(유선 6개, 무선 1개)

조명시설 : 사용가능



### 세미나실

면적 : 117㎡

좌석 수 : 40석

대관료 : 19,220원(1일 기준)

\* 전기료별도(냉. 난방사용료)



프로젝트 : 사용가능  
노트북 : 개인지참

음향시설 : 사용가능

정수기 : 사용가능





## 문화사랑방

면적 : 68㎡

좌석 수 : 50석

대관료 : 11,740원(1일 기준)

\* 전기료별도(냉. 난방사용료)



프로젝트 : 사용가능  
노트북 : 개인지참

음향시설 : 사용가능

정수기 : 사용가능



## 시민갤러리

면적 : 253㎡

대관료 : 44,370원(1일 기준)

\* 전기료별도(냉. 난방사용료)



### 대관 신청(20일 전에 신청)

- 대관문의 : 기획운영과 이정민 tel 063-220-1010 / fax 063-223-5653
- 신청방법 :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참여>시설대관 (<http://jeonju.museum.go.kr>)
- 제출서류 : 대관신청서, 사용자준수사항

### 이용 가능 일시

연중 오전 9시 ~ 오후 6시(휴관일 : 월요일, 1월 1일)

## 중국 쑤저우박물관 소장 名品選 당송전환기의 오월(吳越)

국립전주박물관은 2015년 하반기 기획 특별전으로 “당 송 전환기의 오월 (吳越)”(2015.10.27.~12.20)을 개최한다. 이 전시는 중국 쑤저우박물관(蘇州博物館)의 엄선된 대표유물을 통해, 오대십국(五代十國)시기 절강성과 강소성 지역을 중심으로 번영하였으며 후백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오월(吳越)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는 교류전시이다.

중국 쑤저우박물관과는 2009년 상호우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문화교류 증진을 위해 상호 교류해 왔다. 그 결과 처음으로 중국 쑤저우박물관의 명품들이 전주에서 소개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쑤저우는 경제적 번영을 바탕으로 한 중국 내 가장 부유한 지역의 하나로 ‘동양의 베니스’라 불릴 정도로 아름답고 서정적인 곳이며, 태호(太湖), 절정원과 같은 호수와 정원으로도 유명하다. 쑤저우의 대표박물관인 쑤저우박물관은 1960년에 설립되어 쑤저우의 역사와 문화를 알려 왔는데, 2006년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피라미드를 설계한 것으로 유명한 건축가 이오밍 페이(I.M.Pei)에 의해 지금의 모습으로 새롭게

단장하여 그 명성을 더하고 있다. 쑤저우박물관의 주요 소장품은 불교미술품과 월주요(越州窯)에서 만들어진 비색청자(秘色靑瓷)를 비롯하여 다양하고 화려한 도자문화, 문징명(文徵明)으로 대표되는 명대 오파(吳派) 회화, 서예 등이 있다.

전시품은 쑤저우박물관 소장 오대십국시기 유물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당말, 송초 유물까지도 아우르고 있다. 주목되는 유물을 꼽자면, 호구탑(虎丘塔)과 서광사(瑞光寺) 목탑에서 발견된 불교미술품을 비롯하여 오월 국부의 원천이 되었던 월주요 청자, 그 외 무덤에서 출토된 각종 부장품(副葬品) 등을 들 수 있다.

이번 기획특별전을 통해, 오월의 역사와 문화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오월과, 전주를 도읍으로 했던 후백제와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아울러 중국 쑤저우박물관의 명품도 감상하고 전주와 불가분의 관계인 후백제에 대해서도 다시금 돌아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5.10.27.(화) ~ 12.20.(일)



서산인육동 출토 금룡 | 호헌경묘 출토 월요청자유개관 | 호구탑 출토 삼일면관보살입상 | 서광탑 출토 진부사리보당(복제품)

# 황욱의 예술 세계 석전명품선

석전(石田) 황욱(黃旭, 1898-1993)은 전라북도 고창 출신의 서예가인데, 그의 사후 유족은 석전의 작품을 포함한 5,000여점의 유물을 1999년에 국립전주박물관에 기증하였다. <석전명품선>은 황욱의 서예 작품 중 그동안 소개되지 못했던 명품들을 선별하여 황욱의 예술 세계를 새롭게 조명해 보는 전시이다.

황욱은 손바닥으로 붓을 잡고 쓰는 악필법으로 잘 알려져 있다. 처음에는 쌍구법으로 해서, 행서, 초서 등을 즐겨 썼으나 수전증이 심했던 70대부터 악필법을 쓰게 되었다. 85세 이후에는 오른

손으로 글씨를 쓸 수 없게 되자 왼손의 악필로 많은 작품을 남겼다. 황욱은 이처럼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는 예술적 투혼을 보여주면서 90세 이후에도 많은 작품을 남겼다. 아울러 옛 글씨에 대한 탐구와 더불어 끝없는 자기 극복을 통해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이루어낸 서예가로 평가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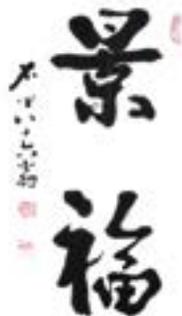
이번 전시는 전북 출신 서예가의 예술 세계를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지역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한편, 유물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박물관 기증 문화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기간

2015.10.27.(화) ~ 2016.1.17.(일)

장소

국립전주박물관 시민갤러리



## 박물관 교육 역사에 특별한 곳 전주어린이박물관학교

국립전주박물관은 최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박물관 교육 역사에 특별한 곳이다. 1992년 국립박물관 중에는 최초로 체험과 교육활동을 위한 전용공간 '문화체험관'을 개관하였고, 1994년에는 국립박물관 최초로 전문 교육담당자 2명을 채용하여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전주박물관에 각각 배치하기도 하였다. 2014년 12월에는 10여 년간 운영되어 온 문화체험관을 일부 개편하여 어린이박물관으로 변화를 꾀하는 등 국립전주박물관의 박물관 교육은 현재 진행형이다.

어린이 대상 교육프로그램은 2002년 문화체험관 개관 이후 1일 프로그램으로 계속 진행했으며, 방학 때에는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한 좀 더 심화된 지역 역사체험을 실시하였다. 2012년부터는 '전주어린이박물관학교'라는 명칭을 달고, 초등학교 3학년생부터 6학년생을 대상으로한 1년 과정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전주어린이박물관학교의 운영 목표는 우리 어린이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역사와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과정과 관계 맺기에 있다. 학교와 학원의 울타리를 벗어나 박물관에서 새롭게 사겨보는 친구, 박물관 선생님과의 긍정적인 관계,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유물과 문화와의 친숙함이 전주 어린이박물관학교 운영의 키워드(keyword)이다.

이번 '제4기 전주어린이박물관학교'는 지난 3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6회에 걸쳐 전라북도의 각지에서 온 초등학교 3-4학년 어린이 35명이 함께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주제로 조선 국왕의 탄생에서부터 죽음까지, 저잣거리-조선시대 상인들, 조선시대의 특별한 직업, 조선시대 소중한 여인들 등을 통해 조선시대 사람들의 삶과 문화에 대한 경험해 보았다. 다양한 소주제를 통해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유물을 스스로 감상하고 관찰하는 탐색 시간도 가졌다.





특히, 올해 어린이박물관학교에서는 조선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고궁박물관과 경복궁 등 답사를 먼저 다녀온 후 교육과정이 진행되어 참가자들의 흥미 유발과 교육 내용에 대한 동기부여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교육활동은 박물관 교실, 전시실, 박물관 뜰 등에서 자유롭게 진행되었다. 박물관 뜰에서 아이들이 육의전의 상인이 되어 목소리를 높이며 거래도 해보면서 당시의 경제활동을 이해해 보았다. 아울러 조선의 특별한 직업을 살펴봄으로써 당시 사회구조와 현재의 사회구조를 비교 이해할 수 있었다. 모든 활동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는데, 조선시대와 현재의 직업이 왜 달랐는지, 조선시대 존중 받지 못했던 여성들의 삶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친구에게 설득시키는 방식을 택하였다.

20~30년 후 사회의 주축이 될 어린이들이 전주어린이박물관학교에서의 배움과 경험을 통해 바른 역사의식과 태도를 지닐 수 있기를 바라며,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올 내년 '제5기 어린이 박물관학교'에도 관심 있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 9월 문화공연 [가을날의 뜨락음악회]

야외콘서트 / (사)마당 / 90분

사단법인 마당은 문화계 전반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작지만 소중한 지역문화를 만들고 전파하려 노력하는 전라북도 사회적기업이다.

사단법인 마당의 '가을날의 뜨락음악회'는 올해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열아홉 번째 밤을 기다리고 있다. 가족이 서로의 손을 잡고, 슬리퍼를 신었지만 편안한 옷차림으로, 생활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문화예술의 참 의미를 되찾아 가는 자리가 '뜨락음악회'이다. 뜨락음악회를 통하여 박물관의 개념과 이미지를 단순한 전시공간이 아닌 복합문화공간으로 확장시켜나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전통문화중심도시이며 예향의 도시인 전주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아울러서 '가을날의 뜨락음악회'는 우리 지역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후원해 만들어진 무대로서, 이를 명확히 하고 각 인식하기 위해 시민후원인의 명단을 팸플릿에 기

재하여 관객들이 소극적 관람객이 아닌 주체적 입장에서 음악회를 즐기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줄거리

- 현대 무용단 '사포'  
: 깊이 있는 무대를 비롯해 대중과 호흡할 수 있는 창작무대
- 필하모니 첼리스트 앙상블  
: 전주시향 첼리스트 김홍연을 중심으로 한 첼리스트가 함께하는 연주
- 가야금앙상블 '가야금빛'  
: 우리민요와 힙합, 일렉트로닉장르를 크로스오버한 국내 유일 가야금3중주단
- 팼페라 앙상블 '라스트라다'  
: 지역을 대표하는 젊은 성악가들
- 전북 남성합창단 '무지카 덴탈레(Musica Dentale)'  
: 이탈리아 국제 합창제에도 참가한 전라북도 남성치과의사들이 만든 합창단





# 10월 문화공연

## [다문화 뮤지컬 “수크라이” 필리핀편]

뮤지컬 / (주)샐러드 / 60분

다국적 이주민으로 구성된 극단 (주)샐러드 (대표:박경주)는 이주민과 정주민의 문화적 경계를 뛰어넘는 소통을 통해 문화 다양성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고자 2009년 창단해 운영해 오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다. 매년 2회 이상의 정기공연을 진행했으며 서울지방연극제, 수원화성국제연극제, 안산국제거리극축제 등에서 초청공연을 펼친 바 있다. 현재까지 총 202회의 워크숍 및 150여회의 공연을 진행하여 2만 여명의 관객을 만났으며 이주민이 직접 창작에 참여하는 유일한 예술단체로서 대외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샐러드는 현재까지 총 4년에 걸쳐 신나는 예술여행 공연단체로 선정돼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교육시설에서 관객을 만나고 있다.

‘수크라이’는 국내 최초 이주민 뮤지컬 연출자이자 샐러드 상임연출인 공연예술가 로나 드 마테오씨의 첫 연출작으로, 협력연출 안내쉬, 작곡 길

하이존, 출연진으로는 발데즈마 글라이자, 오로나 올란치메크, 란피엔하, 아지자 등 이주민 예술가들이 함께 만드는 특별한 다문화 뮤지컬이다.

### 줄거리

필리핀 다문화 가정 2세 경희는 친해지고 싶은 친구인 학교 우등생 진주에게 상습적인 학교폭력을 당한다.

어느 날 필리핀에 있는 할아버지에게서 받은 머리핀을 훔고 학교에 갔다가 진주에게 빼앗기게 되고 경희의 엄마는 진주의 집에 찾아가는데... 평화롭고 즐거운 필리핀 문화를 통해 경희와 진주 가정이 화합하게 되는 해피엔딩 스토리를 담고 있다.

최근 학교폭력 문제로 인하여 교육현장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에서 만큼은 선주민과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의 경험적으로 차이가 없다. 학교에서 생활하는 누구나 공감대와 문제의식을 불러낼 수 있다. 공연을 관람하는 학생들이 본 뮤지컬을 통해 학교폭력으로부터 예방되고 보호되어 즐거움과 자유를 만끽하길 바란다.



# 전북의 항일의병과 독립운동 특별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전시기간 : 2015.7.23.(목) ~ 10.11.(일)    전시장소 : 전주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 2,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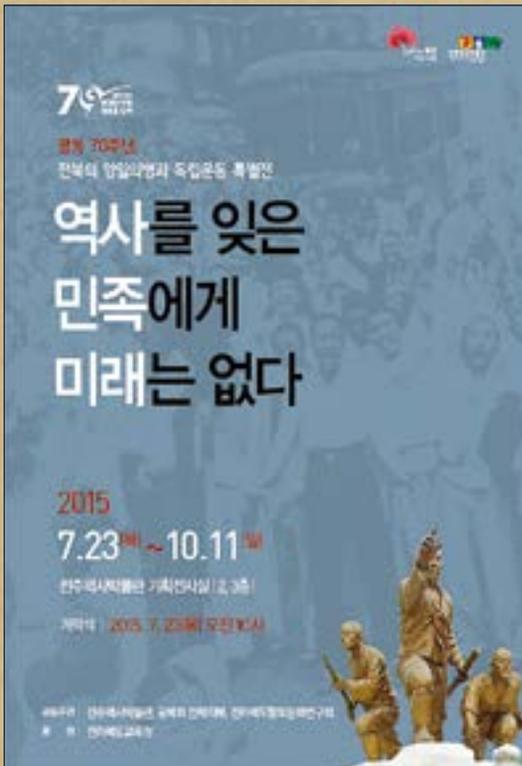
올해는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통치로부터 벗어나 자주독립한 지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전주역사박물관은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전라북도향토 문화연구원, 광복회 전북지부와 함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주제로 특별전을 마련했다.

이번 특별전은 전북지역의 한말 항일의병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되돌아보는 ‘전북지역 한말 항일의병’ 1부와 2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3부 ‘의로운 죽음, 자정순국’ 등 총 3부로 구성되어 관련 자료 약 100여점의 유물을 전시했다.

전라북도는 독립운동사에 많은 애국지사를 배출해낸 지역이지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한말 항일의병부터 독립운동까지 전북지역의 독립운동을 되돌아보고 나라를 위해 몸바친 애국지사의 숭고한 뜻과 넋을 알리고자하는 뜻이 담겨있다.

특별전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우리 민족의 수난과 국난극복의 역사를 되짚어 역사의식을 함양하고 역사적 자긍심 고취를 비롯, 전북도내 의병과 순절자를 재조명하고 대표 유물들을 전시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의 위상정립과 지역민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 세계유산등재기념 “칠보 그 아름다움에 대하여”

전시기간 : 2015.7.07.(화) ~ 8.23.(일)      전시장소 : 익산 보석박물관 기획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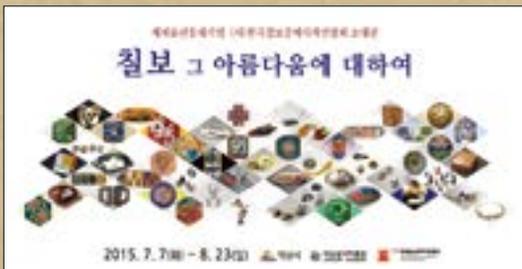
공주·부여·익산의 백제시대를 대표하는 유산 8군데를 한데 묶은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특히 익산 미륵사지, 왕궁리유적은 고대 동아시아 문명의 발달에 절정을 보여주는 탁월한 가치를 지닌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보석박물관에서는 세계유산등재기념으로 (사)한국칠보공예디자인협회 초대전 "칠보 그 아름다움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열었다. 한국칠보공예디자인협회는 1983년 고 이방자 여사가 오랜 전통과 역사를 지니고 발전한 우리나라의 칠보를 계승하고 수준 높은 칠보를 보급하기 위해 창립 전을 가진 이래로 매년 꾸준히 전시를 하고 있다.

칠보란 금속표면 위에 유리질의 칠보 유약이나 그 혼합물을 올려 700~900 °C 정도 고온의 불에 구워내 금속표면을 장식하는 공예기법이다. 일반 금속이나 보석이 갖고 있는 색상의 한계를 넘어, 금속판 위에 그린 그림이라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화려적인 표현이 가능한 색채 예술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여성의 몸치장을 돋보이게 하는 반지, 목걸이, 브로치 등의 장신구뿐 아니라 고급스런 차잔, 그릇, 함, 벽걸이 등 다양한 칠보공예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시중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수준 높은 작품들로 칠보공예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느껴볼 수 있다.

박물관 관계자는 “전시회는 보석을 대신하기도 했던 7가지 아름다운 빛과 광택을 지닌 칠보공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로부터 즐겨 사용된 칠보 장식기법을 한 눈에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최북미술관기획전 수묵에 물들다

전시기간 : 2015.7.04.(토) ~ 8.26.(수) 전시장소 : 무주군 최북미술관 2층 기획전시실

전북 무주군 최북미술관에서 7월 4일부터 8월 26일까지 기획전 '수묵에 물들다'가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는 이화여대 오숙환 교수와 전북대 이철량 교수의 작품 25점이 전시된다. 시간과 공간, 빛과 사막, 바람 등을 그림으로 표현한 오숙환 교수의 작품들은 한없는 부드러움으로 몽환적 느낌을 전달하고 있다. 정확하게 떨어지는 필선과 응집력으로 도시를 표현해낸 이철량 교수의 작품들은 수묵에 현대성과 조형성을 더하며 묘한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최북미술관 관계자는 "최북미술관이 엄선한 좋은 작품들을 통해 한 여름 더위도 식히고 마음의 위안도 얻기를 바란다"며 "월요일 휴관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방된다"고 말했다.



# 한국전쟁 보도사진 100선 굳세어라 금순아

전시기간 : 2015.6.05.(금) ~ 9.27.(일)      전시장소 : 완주 책박물관

올해는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65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당시 전쟁의 소용돌이 중심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나고, 이제 한국전쟁은 역사 속으로 묻혀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자 손녀인 요즘의 젊은이들 중에는 북한 공산군의 남침 사실에도 의문을 갖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굳세어라 금순아」는 완주 책 박물관 제17회 기획전시로, 한국전쟁 중군기자들이 촬영한 100장면을 엄선한 한국전쟁 보도사진전입니다. 이 사진들은 당시에 인화된 오리지널로 저널리스트의 시각으로 바라본 전쟁과 휴먼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계기로 한국전쟁의 참상과 진실이 젊은 세대에게 올바르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책박물관과 문화를 사랑하는 여러분을 삼례책마을로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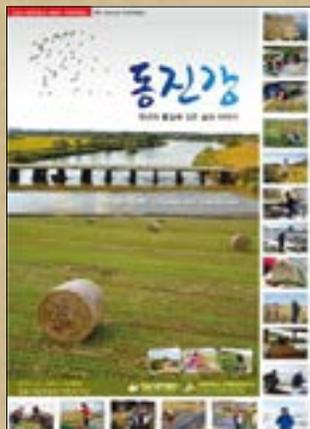
## “동진강, 천년의 물길에 깃든 삶과 이야기”

전시기간 : 2015.9.22.(화) ~ 2016.2.14.(일)    전시장소 : 정읍시립박물관

정읍시립박물관에서는 전북대학교 무형문화연구소와 공동으로 정읍에서 발원하여 서해로 유입되는 ‘동진강’을 컨텐츠로 기획특별전을 추진하고 있다.

전시명은 “동진강, 천년의 물길에 깃든 삶과 이야기”로 9월 22일부터 2016년 2월 14일까지 5개월간 열릴 예정이다.

정읍의 젓줄인 동진강 유역의 자연, 사람, 삶, 문화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차별화된 전시연출로 동진강을 재조명한다. 전시연출의 기본방향은 사람 중심, 스토리 중심으로 강가에서 살아 왔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동진강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카메라, 초상화를 만나다”

전시기간 : 2015.9.11.(금) ~ 12.31.(목)    전시장소 : 전주 한옥마을 내 여명카메라박물관

전주 한옥마을 내에 위치한 여명카메라박물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북도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카메라, 초상화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초·중등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카메라의 역사와 작동원리부터 카메라 옵스쿠라를 활용한 초상화 그리기까지 카메라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체험교육프로그램을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고 있다.

특별전시는 한국 최초의 카메라 기록인 다산 정약용의 『여유당 전서』 기록을 바탕으로 서양문물인 카메라와 한국전통문화의 접목을 시도하여 실학사상에서 카메라를 찾아보는 최초의 특별전시 “카메라, 초상화를 만나다”를 9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과 전북의 청소년들에게 많은 문화적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어린이박물관 새단장 개관

국립전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은 지난 8월 25일 조선 왕실의 분향 전주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체험거리로 새단장하여 재개관하였습니다. 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 눈높이의 역사문화 체험공간으로 국립전주박물관 상설전시를 이해하기 위한 징검다리 공간입니다. 전시 내용으로는 나는 조선의 왕이로소이다를 주제로 왕세자의 길, 나는 왕이로소이다, 왕실의 멋과 맛이라는 기존의 소주제에 '조선왕실과 전주'를 더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조선왕실과 자신이 살고 있는 전주의 관계성에 대해 신나게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의 방, 전주성을 지켜라 등은 특히, 초등생을 위한 체험물입니다.

어린이박물관은 동생들만 가는 곳이란 생각은 노노노!

기존의 왕실의 멋과 맛 체험 영역도 보다 알차게 꾸며졌습니다. 임금님의 수라상은 최고의 재료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백성의 살림을 돌보는 선조의 지혜가 숨어 있음을 알 수 있죠. 아이들 스스로 재료를 수확해 보고, 임금님의 수랴상도 차려본다. 왕세자가 독서하며 쉬었던 편우사에도 올라 봅니다. 박석 위를 걸으며 왕들의 걸음걸이도 흉내 내봅니다. 체험하는 동안 절로 조선시대 왕실로 빠져드는 어린이박물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운영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폐관 1시간 전 입장마감)
- 단체예약 : 오전 10시, 오후 1시, 오후 3시 (3회)
- 입장료 : 무료
- 문의 : 063-220-1035/1038

## 문화공연

2015년 3월 ~ 10월매주  
3번째 토요일

9.19.(토)

가을날의 트락음악회

오후 7:00 / 박물관 야외 트락 \*별도 예매 없음

10.17.(토)

가족 뮤지컬

“수크라이(Suklay,머리핀)”

박물관 강당



## 전시

10.27.(화) ~ 12.20.(일)

중국 쑤저우박물관 소장 명품선

〈당송전환기의 오월(吳越)〉

엄선된 대표유물을 통해 오월(吳越)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는 교류전시

10.27.(화) ~ 2016.1.17.(일)

석전 명품선 石田 名品選

독창적 예술 세계를 이룬 서예가로 평가받고 있는  
석전(石田) 황욱(黃旭)의 작품 전시



\*공연은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 <http://jeonju.museum.go.kr>과

\*국립전주박물관 모바일웹 [mjeonju.museum.go.kr](http://mjeonju.museum.go.kr)에서

선착순 예매를 통해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프로그램

### 역사문화 강좌 프로그램

\_제16기 박물관대학 | 조선회화 강론

- 대상      고등학생 이상 지역주민 230명
- 내용      조선시대 회화사의 흐름과 특징을 한눈에 살펴보고 이해할 수 있는 강연
- 시간      9월 ~ 11월 기간 중 토요일 14:00~16:00 (총 5회)
- 참가신청   박물관 누리집 130명 / 우편, 방문, 팩스 100명
- 기타      참가비 없음
- 문의      063)220-1015 학예연구실



### 공교육 연계 프로그램

\_청소년 박물관 직업체험 '큐레이터'

- 대상      중고등생 30명 내외(회당)
- 내용      박물관의 학예 분야 직업체험을 통해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임
- 시간      9월 ~ 12월 기간 중 매주 수요일, 2시간(시간 협의)
- 참가신청   박물관 누리집을 통한 선착순 사전예약
- 기타      참가비 없음
- 문의      063)220-1038



## 2015년 교육프로그램 일정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간	내용
어린이박물관	병아리 그림자놀이	영유아단체	3~11월(화) 사전예약	다양한 주제의 교육연극을 통해 어린이박물관 경험
	어린이박물관 나들이	유초등단체	3~11월(금) 사전예약	주제를 통한 다양한 체험활동 학제간 연계활동
	토요박물관 가족탐험대	가족동반	3~11월(토) 사전예약	가족이 함께 주도적인 체험기방 활동을 통해 옛 문화를 이해
	박물관 숲	가족동반	10월(토)	박물관 정원에서 뛰놀며 옛 사람들의 생활을 알아가는 시간
	내가 박물관 퀴즈왕	어린이박물관	3~12월 연간회원	매월 새로운 미션을 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제시하고 참가토록 함
심화	제16회 박물관대학 '조선의 회화'	일반인	9~11월(토) 총 5회	조선회화의 이해를 돕는 강연
공교육연계	청소년 박물관 직업체험 '큐레이터'	중고등학생	3~11월(수) 사전예약	큐레이터의 역할체험을 통해 관련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임
	수험생과 함께하는 박물관나들이	중고등단체	수능 이후 사전 예약	수험생을 대상으로 우리의 문화와 예절을 익힘으로써 고위 정신을 이해 박물관 대표 유물 감상
	박물관 새싹 프로젝트	초등단체	4~11월	박물관 인근 초등학교 1년에 1번 박물관 방문활동
장애인	유물 오감 체험	지적장애인 시각장애인	3~11월	촉각, 후각 등 오감을 통해 우리역사에 대한 이해
	회화 감상	지적장애인 시각장애인	3~11월	그룹별 이야기로 풀어나가는 우리나라 전통회화감상
나눔	찾아가는 박물관	환아	3~11월	즐거움 유물과 역사 체험
매개자	대학생 자원봉사자	관련학과생	3~12월	현장 중심의 예비전문인력 양성
	라온누리	자녀를 둔 어머니	3~12월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재능기부 교육활동





'전체나 전부의' 뜻을 지닌 순우리말,  
'모두의'라는 뜻도 있어 박물관 구성원 구독자 모두의 잡지라는 의미  
全州의 전(온전 전)에 해당하며, 한자로는 따듯할 溫, 평온할 穩, 쌓을 纒 포함  
On은 (거리적 시작적으로) '진보하여'라는 의미



국립전주박물관  
Jeonju National Museum

주소 5507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송고개로 249  
전화 063)223-5651  
누리집 [jeonju.museum.go.kr](http://jeonju.museum.go.kr)